



오픈뱅크가 올해 '제3차 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로 선정된 73개 단체에 37만42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3면)

## 미시건 주 동성결혼 합법화 효력 하루 만에 중지·벌써 300쌍 결혼

미시건 주의 동성결혼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21일 허가된 이후, 하루 만인 22일 항소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지됐다. 지방법원의 버나드 프리드먼 판사는 2004년 미시건 주민 59%가 찬성해 입법된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기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항소하며 효력 중지를 요청했고 제6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시건 주는 그보다 앞서 동성결혼이 지방법원에 의해 합법화 됐지만 항소 중인 유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주와 동일한 신세가 됐다.

유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미시건 주는 모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다. 유타 주에서는 주민의 66%,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76%, 버지니아 주에서는 57%, 미시건 주에서는 59%의 찬성을 얻었다.

현재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동성결혼법의 효력은 주마다 약간 다르다. 지난해 12월말 유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후, 이 문제가 제10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되기까지 보름동안 약 1천3백쌍이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현재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성결혼은 금지된 상태지만, 이 1천3백쌍은 소위 동성결혼이 합법인 보름동안 결혼증명서를 받았기에 이들의 결혼 지위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제10순회 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인 오클라호마의 경우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났지만 유타 주의 케이스가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한적 판결을 내렸다.

이런 추세 속에서 버지니아 주는 동성결혼을 합법이라 판결하면서도 제4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때까지 효력을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의 경우는 단 하루 만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뒤집혔지만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제한적 효력을 명시하지 않아 유타 주에서처럼 지방법원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결까지 하루 만에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323쌍의 커플의 결혼 지위가 불분명해졌다. 김준형 기자

## 신학교 나서면 목회 성공한다고? 시대가 바뀌었다

“편안히 목회하겠다는 그대 바로 안 되는 목회다”, “부흥할 거라고? 교회 존립조차 어렵다”, “세일즈(sales)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마케팅(marketing)을 해야 한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4년 봄 신양사경회에서 호성기 목사는 현대 교회와 목회에 관한 위기 의식을 토해냈다. 미주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선교 지도자이면서 창립 19주년을 맞이한 필라델피아교회의 담임인 호 목사는 “대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1년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99개가 문을 닫고 1개만이 남는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이 신학교 문을 나서면 부목사를 거쳐 담임목사가 되어 개척하거나 청빙 받거나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잘 될 것이라 장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옛날에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세일즈 하면 되는 시대, 즉 팔면 됐지만 요즘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시대. 이런 시대는 마케팅을 요구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는 데 왜 성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갈등을 모르고 무작정 말씀

을 전하기 때문이다. 편안히 목회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목회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교회와 목사”라는 강의에서 호 목사가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꼽은 것은 선교다. 그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착각을 좀 버려라. 우리의 옆집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불신자 이민자들이 살고 있으며 미국 자체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신권을 무시하는 반기독교 국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슬람권 국가도 가야 하며, 수천 달러를 들여 해외 단기선교도 다녀야 한다. 모두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멀리 가지 않으면 선교를 못하는가”라고도 물었다. 그는 “통계적으로 1천명 성도 중 2.8명이 해외선교사가 되는데 나머지 997.2명은 선교를 못하나? 아니다.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그는 근·현대 해외 선교의 역사를 윌리엄 캐리의 연안 선교 시대,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 시대, 도날드 맥가브란과 카메론 타운센드의 종족 선교 시대로 정리하고 이를 잇는 제4의 물결로서 디아스포라 선



호성기 목사가 세계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 운동을 꼽았다.

즉,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 찾아오는 이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인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국제대표로 있는 세계전문인선교회(PGM)는 이런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시무하는 필라델피아교회에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해 현재 미주와 유럽의 한인교회들에 보급하고 있다. 호 목사는 “이슬람권에서 20년간 1명을 전도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한 성도가 손짓 발짓으로 베네수엘라의 이슬람 형제 1명을 전도했다. 그가 세례 받고 개종한 후, 자신의 친구들을 전도하

면서 우리 교회는 5부 예배를 스페니시로 드릴만큼 성장했다”고 간증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일본인, 백인 등 타민족, 타인종이 전도되면서 이 교회는 다민족적 성격도 갖게 됐다. 그는 “영어 잘하는 2세가 타민족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민자의 아픔을 아는 우리가 타 이민자를 전도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선교의 개념이 “꼭 해외로 나가는 것”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전환되었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자녀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다. “현재 한인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10명 중 9명이 신앙을 버린다”며 호 목사는 “우리 교회는 교회 교육도 선교적 측면에서 접근해 창립 때부터 3대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도행전 8장 1-8절을 인용하며 “초대교회의 복음도 흠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전파됐다. 교회가 선교라는 본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여러분들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전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김준형 기자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나라 오토 덴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임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증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증언어과정은**

- 미래미인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증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다름을 인정하는 통이(統異)공동체...다가올 통일 시대 맞아

## 나성영락교회서 북한선교학교 열려, 북한선교 전문가들 통일사역자 훈련



지난 20일 북한선교학교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20일(목) 오전 9시부터 22일(토) 오후 5시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소원! 통일사역자 훈련”을 주제로 북한선교학교가 열렸다.

북한선교에 관심 있는 한인교회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 이철신 목사(서울 영락교회 담임), 양금희 교수(장신대), 하충엽 목사(서울 영락교회 선교전담) 등 북한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섰다. 김경진 목사의 설교로 시작된 첫째 날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 및 오리엔테이션’, 하충엽 목사의 ‘통이(統異)공동체란 무엇인가’, 강인덕 전 장관의 ‘북한 정치 이해’, 김내영 장로(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의 ‘영락교회 북한선교사역과 자유인사역’, 양금희 교수의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 강의로 진행됐다.

“통이공동체 : 분단시대의 끝에서 바라보는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하충엽 목사는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수 있듯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눅12:56)을 강조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뒤로 물러나고 그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와 2천 4백만의 북한 동포가 합쳐진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면, 최윤식(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 박사가 예측하듯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남북한 사람들의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에는 국가적 개념, 즉 혁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평

양에서 꽃은 주체사상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예를 들어 대화는 애국적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며, 해바라기는 민족의 태양을 상징하는 김정일화를 향하고 있다... (중략)... 이것은 주체사상의 핵심을 세뇌시키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서 언어를 어떻게 혁명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설명했다. “1966년 북한의 문화언어 창달 정책에 의해 체제를 함축하는 단어들만 만들어졌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남 북한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남한에서는 능력이 있거나 방법을 알고 있다, 혹은 의지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북한에서는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즉 주체의식과 결부된다.” 그는 이러한 언어적 차이가 탈북 이후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알렸다. 탈북민은 “북한에서는 인민들은 항상 당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남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어렵게 직업을 얻어 첫 출근을 한 날, 과장이 일을 가르쳐주며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나는 버릇처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로 인해 나는 일을 배울 수 없었고 그와의 관계도 힘들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서로의 언어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층적으로 이해할 경우 남한과 북한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동 양식의 차이의 하나로 ‘약속’을 지적했다. 그는 탈북민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탈북민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한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약속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약속은 당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약속은 중요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위르겐 몰트만(Moltmann)과 미로슬라브 볼프(Volf)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질화된 두 공동체서 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법의 하나로 “통이(統異)공동체”의 형성을 제안했다. 그는 “13년간 영락교회에서 탈북민 사역을 통해, 남북한은 동질성의 공동체가 아닌, 이질화된 공동체임을 경험했다. 서로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두 공동체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공통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화한다는 ‘통일’ 인식과는 구별돼야 한다. ‘통이’란 서로 다른 두 공동체가 한 공동체에 다른 공동체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해주며 조화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몰트만은 그의 책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많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한 장면을 “다양성 안에서의 공동체 형성하는, 타자됨을 받아들이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몰트만의 제자인 볼프는 『제품과 용서』에서 타자에 대한 배제에서 포용으로 선회하기 위해 ‘회개’, ‘용서’,

“타인을 위한 공간 만들기” 그리고 ‘기도하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타자를 공동체로 환대했을 때,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 진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의 창출로 나아가는 과정이 통이공동체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날 마지막 순서 ‘교회에서의 통이공동체’에서는 하충엽 목사, 구혜미 전도사를 비롯해 두 탈북민이 패널로 나서 그들이 경험한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해 전했다.

특히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북한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며, 북한의 주체사상 주입방식에 대해 알렸다.

“은혜라는 단어는 주체사상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다. ‘영생은 수령이 은혜로 준다’라는 식으로 ‘은혜’는 김일성 수령 및 김정일 장군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다. 사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부모에게도, 부부 간에도 쓸 수 없으며 부부나 연인들은 ‘아껴준다’라는 말로 대신한다. 북한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함부로 쓰지 못한다. 한 국에 와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타태복음에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을 접했을 때, 김일성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인 줄 알았다. 북한에서는 ‘적(enemy)’의 의미로 원수를 받을 때는 [원수] 라고 한다. 북한의 두음법칙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는 ‘려자(여자)’ ‘영도자(영도자)’라고 발음한다. 한국에 와서 ‘유일영도체계(북한에서는 유일영도체계라고 발음함)’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도자’라는 말도 오직 수령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리더가 되라는 들었을 때 어리둥절했다.”

하충엽 목사는 “북한에 가서 강의를 마치고 ‘이해가 되냐’고 묻자 안내를 해주던 사람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다르게 생각하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리해가 되느냐’고 발음해야 한다고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하충엽 목사는 강의 참석자들에게 ‘백마’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지

물은 후, 다시 탈북민들에게 물었다. 탈북민은 “백마 탄 김일성, 김정일이 떠오른다. 어릴 때 ‘백마 노래’를 부르며, 수령을 태우는 백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북한 대부분의 소녀들이 그렇게 자란다.”

또 한 탈북민은 11살 때 김정일 장군이 차에서 쪽잡을 하며 죄기밥(주먹밥)을 먹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을 이야기했다. 이에 하 목사는 실제 김정일의 한끼 식사 비용이 180만원에서 200 만원을 호가했으나, 북한은 어린소녀가 ‘장군님의 쪽잡과 죄기밥’이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 놔다며 황장엽씨의 말을 인용했다. “북한 사람들은 먹일 것이 없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병든 게 문제다. 굶어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령님을 잘 모시라’고 말하는 사회가 북한이다.”

하 목사는 “통일이 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2천 여명의 동포가 이런 사람들이다. 쉽고 간단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를 준비할 사명이 있다”고 마무리 지었다.

한 탈북민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김일성에 대해 말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 거부감이 들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깨달았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많겠지만, 두렵지 않다. 앞으로 길바닥을 쓸진, 아프리카에 가 봉사를 하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한국에 왔기에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통일 뿐이다. 이런 학술대회를 많이 찾아 갔는데,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북한 경제가 붕괴돼 통일된다고 전망하나 크리스천들은 김일성 사상이 무너져야 북한이 무너진다고 말한다. 나는 후자를 믿는다.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사실 보다 하나님도 모르고 죽어간다는 게 더 가슴 아프다”고 소회를 전했다. 구 전도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 학생들이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 통일 후 북한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꿈꾼다”며 강의를 마쳤다.

주디 한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다운 여인이 되어서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W 교통신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데모집”

<2014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

- 2014. 8.18~8.29 - 젊은이들을 위한 이스라엘 전일정 단기순교(11박12일) \$999 + 항공료
- 2014. 9.1~9.6 - 한국 선교지(순교지) 성지순례(5박6일) \$699 + 항공료
- 2014. 11.3~11.12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7~11.26 -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0~11.17 - 터키, 그리스 2개국(7박8일) \$999 + 항공료
- 2014. 11.10~11.19 - 터키, 그리스 2개국(9박10일) \$1,399 + 항공료
- 2014. 11.10~11.22-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1,999 + 항공료

(※ 현지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수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세요?  
모세의 출애굽의 땅! 예수님의 부활의 땅!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된 그 땅!  
바로 그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요르단 2개국과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 성지순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성령의 땅을 밟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른쪽 안내와 같이 금년 가을 성지순례 일정을 참고하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롬!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 산타모니카한인교회 4주년 “십자가의 희생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LA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산타모니카의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산타모니카한인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해 23일 오후 2시 30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집회를 개최했다.

UCLA, SMC 등 대학가 복음화에 주력하고 있는 이 교회는 4주년 기념에 배를 대니얼 뉴만 교수를 초청해 드렸다. 뉴만 교수는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날 강의를 유창한 한국어로 이끌었다.

이날 뉴만 교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교회의 사명은 받

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함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깨끗할 때 만진 것이 아니라 아프고 부정했을 때 만졌다”며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셔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 교회의 사명은 치유하는 것이고 아픈 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만 교수는 아주사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백석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모교인 아주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토마스 멩 기자



산타모니카한인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해 23일 오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집회를 개최했다.

## 동문교회 영성집회 “기도의 막대기로 새 길을 열자”



동문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춘계 영성집회를 개최했다.

동문교회(김상호 목사)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21일부터 23일까지 양준원 목사(열방제자교회)를 강사로 춘계 영성집회를 개최했다.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양준원 목사(열방제자교회)는 동문교회가 엘에이의 외로운 이민자들을 치유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다.

21일 열린 금요저녁집회에서는 김상호 담임목사의 인도로 동문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집회에 임했다. 양 목사는 ‘하나님의 용서’(사사기 3장 31절)라는 제목으로, “구약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다”며 “내 신앙의 정착을 위해서 내안에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자”고 말했다.

양 목사는 “본문에 나오는 사사 에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모압왕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웠다”면서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쓰신다”고 강조했다. 양 목사

는 이어, “사사의 손에는 막대기가 있었다”며 “기도의 막대기, 찬송의 막대기, 전도의 막대기, 선교의 막대기, 격려의 막대기, 봉사의 막대기를 붙들라”고 권면했다.

22일 새벽집회에서는 동문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 참석해, 자녀들을 축복하며 양준원 목사가 인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동문교회는 23일 주일 11시에 창립 2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인규 기자

## 남가주교협 증경회 주관 월례 기도회 가져

19일 오전 11시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주관으로 교계 및 사회계 인사 초청 기도회가 열렸다.

1부 예배 2부 간담회 순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류당열 목사(본회 회장) 사회로 김영배 목사의 기도(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최학량 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모임은 김영화 목사와 찬양팀의 특별 찬양과 이태한 목사(남가주 기독교 원로목사회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간담회 순서에서는 김사무엘



남가주교협 증경회 주관 교계 및 사회계 인사 초청 기도회 후 기념 촬영.

목사가 사랑의 쌀 모금에 관련해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의 입장을 밝히고,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 회장)가 최근 남가주와 미

주 신천지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남가주 교회의 강력한 연결과 대처를 주문했다.

박창민 기자

## 오픈뱅크 73개 비영리단체에 지원금 전달

오픈스튜어드십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오픈뱅크(민감 행장)가 20일 저녁에 LA다운타운 본점에서 올해 ‘제3차 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로 선정된 73개 비영리단체에 37만 4200달러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미주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지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오픈스튜어드십 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작년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총 84개 단체의 응모를 받아 재단 내부의 심사를 거쳐 73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제 3차 “청지기 프로그램”에 선정된 단체는 소망 프로그램(3

천 불) 9개 단체, 믿음 프로그램(7천 불) 21개 단체, 사랑 프로그램(1만 불) 33개 단체,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은혜 프로그램(3천 불) 10개 단체다.

이번 심사 때는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단체 중 정직과 성실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2011년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오픈스튜어드십 재단은 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의 10퍼센트를 지역사회에 매년 환원하고 있다.

주디 한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엔이 직접캔 원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신학이 답한다 - 풀러신학교 이학준 교수

# “은혜의 능력이 복합적 삶에 번역·표출되어야”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은 더 이상 충격적이거나 새롭지 않은 사실이 되어 버렸고 이런 위기론은 미주 한인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접근 방법과 분석이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런 현상을 겪게 된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해법도 분명 있을 것이다. 본지는 그 해법을 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가기 위해 남가주 지역 신학교의 한인교수들을 만나 <신학이 답한다>라는 주제의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다.

그 첫번째는 기독교 윤리학자인 이학준 교수(풀러신학교다. 미국 내에서도 마틴 루터 킹에 관한 권위자로 꼽히는 그는 템플대학교에서 M.A., 프린스턴신학교에서 M.Div., Th.M., Ph.D. 등의 학위를 받았다. 프린스턴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을 때에는 최우수(summa cum laude)로 졸업해 화제가 됐다. 이후 뉴브런즈윅신학교, 드류대학교, 뉴욕신학교 등에서 가르치다 2011년 풀러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했다. 뉴브런즈윅신학교 당시에는 동양인 최초로 종신교수에 임명돼 또다시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한 마디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삶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공의는 사랑의 최소치이고 사랑은 공의의 완성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값싼 은혜가 되고 공의만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 둘을 변증적으로 이해해야겠지요.

기독교는 무당이 짐 치듯이 ‘지금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뭐가 더 안전하고 유익할까?’ 이런 이기적이며 유행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사역과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체내화 하고 삶으로 표출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성품을 좇지 않는 기독교는 우상이나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본질적 가치(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사라지면 곧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깊이 던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와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멘붕은 보통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톨릭을 보면 이 세속화 시대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 덕분만이 아닙니다. 개신교에는 열심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나요?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 뿐만 아니라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불교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먼저 두 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가?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 소위 어느 목사가 성공했고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 말고, 객관적 신앙적 진실을 확인하고 이에 충실해 보자는 말입니다.

둘째,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들은 무슨 고민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기독교가 알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디 나가서 데모를 하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상담하고 교육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두 가지인 본질과 민심의 소리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좋은 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킹 목사는 흑인들이 억압으로 인해 자살하고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이 악한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당시 백인들엔 흑인들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흑인들엔 백인들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킹 목사는 이 두 가지를 신앙적으로 정리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고 기독교 정신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권운동가가 아닙니다.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북부에서는 교수도 하고 큰 교회 목회도 할 수 있었지만, 남부로 가서 25세부터 39세에 총탄에 맞아 죽을 때까지 복음을 공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런 것이구나!’ 킹 목사에게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짐 월리스, 데스몬드 투투, 태비스 스마일리 등입니다.

한국 가톨릭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는 환경적 목사가 있었습니다만, 개신교에 킹 목사와 또 당시 인권운동에 깊이 참여했던 흑인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면 지금 개신교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대사회적 응답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 한국교회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익에 손상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요즈음의 한국교회들이 곤란 정치에, 그것도 거의 정쟁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 입장에서, 교회는 시민사회의 여론과 가치 형성에 적·간접적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기에, 사회 참여인가 아닌가보다는 어떤 동기와 뜻에서 참여하는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개신교의 이기심의 종교적 발로(發露)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교회를 키워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까? 그런 영성이 한국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성, 공적 영성이 없고 사적 영성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종교성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적 측면이 없다면 쉽게 이기심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다고 느낄 때 종교를 찾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기심과 종교성은 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존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안심리나 또는 이기심에 호소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와 욕심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욕심과 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적 체험과 교회에 대한 헌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욱 깊어지면 결국 복음의 사회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내는 것이죠.”

### -‘올바른 영성은 결국 사회적 측면, 공공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킹 목사의 영향은 심지어 한인들에게도 미칩니다. 킹 목사가 없었으면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될 수 없었고 아시안들에게 미국 이민의 문은 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일반 언론들도 킹 목사의 활동이 깊은 영성에서 나왔다고 하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킹 목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영성이 없었다면 이런 운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풀러신학교의 이학준 교수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복음의 본질적 회복, 공공 영성의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킹 목사까지 갈 것도 없이 한국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인 안창호, 이상재, 김규식, 조만식 선생들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인데 이 분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개인적 복음은 버렸습니까? 사회적 복음만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모두 살아 있을 때, 1919년 개신교는 인구 2천만 명 중 고작 30만 명이었는데도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만세운동도 전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6세에 독립운동을 이끈 유관순은 불신자도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들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적 유산과 얼을 살리지 못하고, 이 유관순이 기독교의 유관순인지, 한국사회의 유관순인지조차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음 자체는 결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창조와 역사 전체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종교와 비종교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본질의 회복을 위해 올바른 영성을 고양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신앙적 세계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통전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의 눈에서 읽는다는 것, 즉, 성경의 핵심적 가치들을 내 취향과 욕심에 따라 취사선택하지 않고 본다는 뜻입니다. 내 교회 성장, 내 목회 성공을 위해 설교한다면 성경의 어떤 부분들-예를 들면 예언서-은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전이 두려워서 지나치고 싶은 것인 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젠다(agenda)를 갖고 봅니다. 거꾸로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세계관 안에서만 성경을 보려 합니다. 곧 교회 성장이나 성공에 관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저는 보수적인 유교 집안의 장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기 어려웠고 교회 생활을 시작한 후에는 가족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꼭 기독교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물론 신앙 생활을 하며 부흥회나 새벽기도회를 통해 은혜의 체험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당시 저와 같은 젊은이들이 겪는 고민과 아픔에 대해 교회는 답을 해 주

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계속 해야 하나? 다른 무슨 답은 없는가?’ 고민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내 눈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 보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어 보고 뭐가 있는지 정말 찾아봐야겠다. 아니면 괜한 인생의 시간 낭비 아닐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당돌한 생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희미하게나마 생각하던 의와 진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청년들이 겪던 삶의 문제는 교회 입장에서 귀찮기도 하고 또 해결할 능력도 없었기에 청년들이 자기들이 정해 놓은 틀 안에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교회가 은혜와 현실을 매개해 주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죠. 이게 바로 많은 청년들에게 비친, 한국의 70-80년대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능력을 삶의 복합적 현실 속으로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이 각종 편지를 쓸 때 그는 자신의 글들이 신앙성경이 될 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마다 일어나는 신학적·윤리적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응답합니다. 고린도교회에는 음행과 우상의 제물 문제, 갈라디아교회에는 할례 문제 등이 좋은 예죠.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신앙과 윤리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 -이 윤리가 무엇을 지칭하나요?

“윤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쁜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유교적 접근법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른 신자, 충실한 제자가 되는가’를 다룹니다. 이는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부딪쳐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인가?’ 이것이 윤리의 질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복합적 현실 속에서 사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 오는데 교회가 답을 못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 때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진 후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평신도에서 장로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방 전 기독교와 해방 후 기독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가난할 때 믿는 기독교와 부유할 때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졸부가 되듯이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미 시대는 변해서 사회적 요구가 달라졌는데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한국 개신교에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 -총체적 절망이네요. 희망은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사야서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유다 왕국의 압을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신 영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6장 초반부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시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가라, 전해라, 그런데 안 들을 거다.’ 마음 속에 욕심이 있어 듣기를 싫어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사야 시대처럼, 욕심으로 차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듣기를 거부한다고 봅니다. 공적 영성이 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이기심과 사적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하고 땅은 황폐해지고 그 백성은 멀리 옮겨집니다. 절망이죠. 그런데 6장 후반부로 가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십니다. 결국 6장 초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남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하나님적인 것 외엔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된 일들만 남아 그것이 씨가 되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희망입니다. 어디선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의 중흥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거룩한 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 -끝으로 이민교회가 특별히 더욱 집중해야 할 윤리적 과제가 있다면?

“이민교회가 특별히 집중해야 할 과제는 다음 세대와의 관계, 나아가 미국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지금 언어·문화적 장벽 때문에 게토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 게토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민 온 이유도 우리 자녀들만은 미국의 일원으로 살게 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현 이민교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가나안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비전보다는 여전히 애굽에서처럼 성공과 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 예배를, 민수기를 통해 공동체를,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애굽의 사고에서 가나안의 사고로 변화시키려는 모세의 커리큘럼이 현재 교회에 필요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복합적 삶에 현실적으로 번역되어 표출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의 코치여야 합니다. 사령관처럼 자기 군대에 넣고 일렬 종대로 세우는 시대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문화와 교민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분석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사는 삶의 정황을 모르고 말하니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골라서 듣고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삽니다.

이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내어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고 부모에게 얽혀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미국 사회라는 높은 산까지 데려 간 후 밭종도 주지 않고 그 산을 오르라 합니다. 지도도 주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고 아이비리그에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않습니다. 현장 속에서 창조성, 지구력, 능력 있는 신앙을 구비해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현장성 있는 기독교인, 능력있는 기독교인을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김준형 기자

# 섬김에 비례하는 영광

## 빌립보서 2:1-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빌립보서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이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각박한 세상인심에 밀리고 쫓기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이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목자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 자기 입장을 최대한 희생하고 봉사, 충성함으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에 엄청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입장에서 예수님 더 잘 섬기자는 목적의 뜻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대의 가능성이 믿어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망의 믿음을 위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육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바뀌어졌는가를 바탕으로 천년동안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훈련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년이 차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신의 세계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위로하거나 성령으로 영적교제를 통한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시도하는 일들은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편을 존

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이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각박한 세상인심에 밀리고 쫓기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이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목자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영적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 자기 입장을 최대한 희생하고 봉사, 충성함으로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에 엄청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입장에서 예수님 더 잘 섬기자는 목적의 뜻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다툼과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목회에 유익하게 기도과 봉사로 협력하며 은혜 분위기 조성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시험에 든 사람을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누가 모든 안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숨은 봉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서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거시고 아주 귀하게 여기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힘을 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잘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나 사람들, 가족들 앞에 전혀 지적당하거나 걱정을 끼치고 욕먹는 일이 없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피기 이전에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다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빌 2:4). 자기 집은 영광으로 해놓고 교회일한다고 사방으로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오히려 욕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은 4절 이하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믿음이 여러모양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드릴 입장이 되어 질 것이며 이것이 곧 목회성과이며 보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하셨고 요한복음 1:14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6에는 "예수께서 가라

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7-8)는 말씀처럼 종의 모습을 밧바닥까지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버려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여서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모든 성도들과 땅 아래 있는 죽은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빌2:9-10).

교회 안에서 잘난 척하고 분위기 잡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도 없을뿐더러 흑역사라고 해도 천년이라는 세월을 부끄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식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지혜를 보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의 낮아진 만큼 다시 높이셔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악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일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 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학생모집**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정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정부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timjeongueul@gmail.com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위 김효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룩하여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 부교역자 및 전도사 청빙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올리브나무 교회에서  
 부교역자 및 전도사를 청빙합니다.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분은  
 간단한 이력서를 이 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Email : dsbio@yahoo.com

### 유급 찬양팀 모집

찬양 보컬과 세션팀을 함께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 세션팀 :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키보드 각1명씩  
 \* 보컬팀 : 여성, 남성 각 파트 2명씩  
 \* 찬양인도자 : 1명

● **목요일 저녁 찬양 예배와 주일 예배 인도**  
 실력보다 신실한 마음을 가진 분이면 좋겠습니다  
 소정의 사례비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올리브나무교회** Tel : 213-300-9762  
 300 S.Western Ave, LA, CA 90020 Email : dsbio@yahoo.com

### 담임목사 청빙

브라운스빌 한인 열린문 교회는  
 미국 최남단 텍사스 지역에 위치한 교회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 하실수 있는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을(M,Div) 졸업하신분.  
 2)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에 있는분.  
 3) 미국안에 거주하시며 영주권을 소유 하신분.  
 4) 은퇴 목사님도 환영합니다.

-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신앙고백서  
 4) 최종 학력 증명서  
 5) 추천서 2통, 설교CD, DVD 2회분(6개월 이내)

**<마감일>**  
 2014년 4월15일

**<보내실곳>**  
 The Korean open door church of Brownsville 한인 열린문 교회  
 주소: 409 W, 2nd St, Brownsville Tx 78520

**<문의사항>**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멜로 가능하며 서류접수도 가능 합니다.  
 ddhome124@hotmail.com

**한인 열린문 교회** The Korean open door church  
 of Brownsville  
 409 W, 2nd St, Brownsville Tx 78520

###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 I. 지원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혁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소정 양식)  
 2.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3.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5.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 V. 기타:**  
 1.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roman 받음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4.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불수 있음.

### 뉴욕 새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 억울함과 회개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주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했습니 다. 그 가운데 한 분은 많은 사람 들 앞에서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을 주장 할 때마다 교회와 목사님들이 잘못 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힌주어 말합 니다. 물론 청중이 목사님들이기 때문 에 열정으로 강조하는 말이라니 이해 는 하지만 대접까지 해드리며 욕을 먹 는 듯해서 은근히 억울한 마음까지 들 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세상에 억울한 일들 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세상을 살다보면 아담과 하와 가 따먹고 자기들 배만 부른 것을 가지 고 우리가 왜 죄를 뒤집어써야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었겠습니까?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 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 다. 한두 대 맞고 끝나는 일 이 아니라 아예 몸을 찢고 피를 다 흘 려 대신 죽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 늘보좌에서 천군천사의 찬양을 받으시 던 거룩한 예수님 입장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 여 죽는 것이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 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함을 풀기 위

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얼굴에 흐르는 땀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조롱과 멸시, 천대와 고통을 다 당하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 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의 첫 열매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 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사람 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나를 향한,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족 하고, 연약하고, 불의하고, 추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 생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십자 가의 주님 앞에 내 억울함(?)을 내려놓 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회개하

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2주 전 주일 오후였습니다. 제자훈련 16기 젊은 부부들과 함께 교제 순서를 따라 '헌금하는 법'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집니 다. 이제까지 주의 종으로 생활비를 받 으면서 그 해의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 께 드려왔었는데, 2014년 1월 첫 번째 생활비를 첫 열매로 드리지 않았던 것 에 대한 거룩한 책망이었습니다. 나름 대로 이유야 확실히 있었지만, 첫 열매 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 랑을 증거하며 살겠다는 우리 가정의 믿음이, 지진에 건물이 흔들리듯 흔들 렸다는 깨달음이 왔습니 다. 그래서 즉 시로 성령님께 제 교만과 미련함을 조 용히 인정하고 항복의 백기를 들었습 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해 안 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아내의 적 극적인 도움을 얻어 거의 3달이 지난 첫 열매를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유야 있었지만 억울하 지 않았습니 다. 갑작스러웠지만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듯 자연스러웠습니 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가득한 확실함은 누구든지 정 말 주님을 만나면 억울하지 않다는 것, 회개의 기쁨과 자유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 되찾는 기쁨



현 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미스터 김은 친구들과 밤 늦도록 술 을 마시고 집으로 오다가 하이웨이에 서 경찰에게 걸렸다. 운전면허를 빼앗 기자 변호사를 통해서 회복하는데 들 어간 돈도 크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도움을 받을 아 내의 운전 면허증은 장농 속에 언제 넣 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니 기대할 수가 없고 직장에 출퇴근하고 식품점에 가 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야 할 곳이 한 두 군데인가? 이웃에게 차편을 부탁하 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다고 멀리 사 는 자녀들을 매년 부를 수도 없고 택시 를 부르자니 지갑이 허용치 않는다. 그 런 어려움을 겪다가 운전대를 다시 잡 는 날,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다. 언제 나 내 마음대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 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되 었다.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으 리라 다짐하면서 뜬 기분에 아내를 태 우고 여러 시간 운전해서 LA에 밤 늦 게 도착해 시원한 냉면은 곱빼기로 먹 고 아침녘에 집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를 듣고 웃은 기억이 있다.

예쁘다는 칭찬을 받으며 자란 김 여 인은 명문대학을 나온 웅장한 키에 유 머가 넘치는 총각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면서 세상은 다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줄로 착각했다. 그러던 어느날 밤 늦게 집에 오던 남편이 뺨소 니 운전자에게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 자 세 자녀를 혼자 맡은 과부가 되었 다.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그

녀는 애들을 살리기 위해 독한 마음으 로 길가에 나가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 다. 처음에는 서툴고 험피했으나 시간 이 가면서 배짱이 생기고 세상에 겁날 것이 없는 여장부가 되면서 세상은 내 가 가진 것만큼 대접을 받고 최고의 행 복은 온가족이 사랑하며 건강하게 산 다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 이 진리 을 체험한 그녀는 호떡을 남보다 좀 크 게, 그리고 더 맛있게 만들면서 단골손 님을 늘리다보니 손님들이 줄을 섰다. 장사의 달인이 된 그녀는 다른 곳에 분 점을 내고 공부하는 애들을 주간과 야 간으로 시간을 조정하며 온 가족이 같 이 달라붙었다. 또순이 엄마와 그 자녀 들은 몇 년 만에 변두리지만 작은 아파 트를 마련했다. 옛날에 넓은 정원에 화 초를 키우며 파출부를 두고 자가용에 운전사까지 두었던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사는 맛이났다. 김 여인은 이 웃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면

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어 교회에서 시작한 불우학생 돕기에 앞장서면서 새로운 행복을 맛 볼 수 있었다.

유대 땅 막달라라는 작은 마을에 마 리아는 남편처럼 않게 잘 살고 있었는 데 언제부터인가 온몸이 아프기 시작 하며 심지어 발작을 일으키는 정신병 자가 되었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유명 한 의사나 치유사들을 찾아 헤맸으나 별 효과가 없고 여러 귀신이 그 몸에 붙어서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그런 절망속에서 예수님 을 만나 모든 병을 깨끗히 고치고 간질 도 없어졌다. 그때 마리아는 새로운 결 심을 한다. 자기를 새사람으로 살려주 신 그분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는 각오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심 부름을 하였으며 나중에 십자가에 매 달리실 때도 그 옆에 있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삼일 만에 부활하 다는 약속을 믿고 캄캄한 이른 아침 혼자서 등불을 들고 그 무서운 무덤 을 찾아 갔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붙어닥친 어려 움을 잘 극복하며 전에 몰랐던 행복 을 시련 후에 새로 깨닫게 되고 어려 운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시련 을 겪고도 못 깨닫는 바보가 있고 시 련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사는 지혜 자가 있고 시련 전에 늘 조심하고 자 신이 가진 많은 보화에 감사하며 남 에게도 같이 나누는 사랑이 있을 때, 그분은 만복을 가진 분이 다.

### 반율법주의의 아버지 라스푸틴



민 종기 목사  
충현선교회

라스푸틴으로 불리던 한 러시아 청년이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어로 "방탕아"라는 뜻입니다. 그는 한 농가에서 태어나 학교는 다녔지만 제 대로 글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약 명 높은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18 세에 이르러 일종의 종교적 회심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학적인 고행 을 반대하던 방탕아 라스푸틴은 수도 원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의 욕망을 버 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 장기간적 환 락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거룩한 무의 욕"의 상태를 통하여 달성된다는 반율 법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수도원생활을 떠나 방랑 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는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예언 하는 능력을 가진 거룩한 신비주의자 로 둔갑하였습니다. 1903년에 다시 성 페테르스부르크로 돌아온 그는 장래의 짜르(황제)가 될 알렉세이, 즉 황제 니 콜라스 2세의 아들이 가진 혈우병을 고 치게 됩니다.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이 병을 고침으로 그는 일약 거룩한 신비 주의자로 존경을 받았으나, 그의 숨겨 진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는 기행은 잦

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제 니콜라 스 2세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하여 떠난 동안, 궁중의 황제의 고문 으로 악한 인사이드와 비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점차 국가와 더불어 종교는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916년 러 시아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라스푸틴의 악영향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12월에 그를 살해합니다. 모의 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국가 와 러시아 정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 고 있던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 나 라를 송두리째 넘어뜨렸습니다. 비윤 리적이고 무도한 자칭 기독교인이 러

시아의 장래에 끼친 악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 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과연 거룩 한 신앙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규범도 없 이,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 서받고 나서는 죄 안에서 다시 살아가 는 안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죄책 (guilt)과 오염(pollution)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 입니다.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용 서하신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것이니 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으 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음을 반드시 주 지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 다. 둘째,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야 합 니다. 셋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 과 성령의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날마 다 믿음으로 선언하여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 의 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Established 1996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하시면 **Religious Exemption(종교 벌금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독교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 법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전국에 4개 뿐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오바마케어 크리스천 벌금면제 플랜)중 하나이며, 유일한 한인 단체입니다.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

프로그램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 소득,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 기독교의료상조회(CMM) 플랜의 특징 및 장점

-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플랜입니다.
- 한국(선교지)에서 사용한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모든 의사나 병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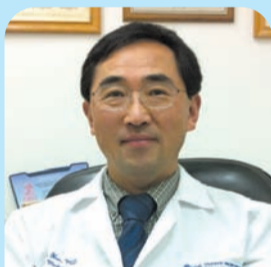
- ✓ **소득**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분
- ✓ **신분** 때문에 정부로부터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
- ✓ **신앙**적인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원치 않는 분

각 지역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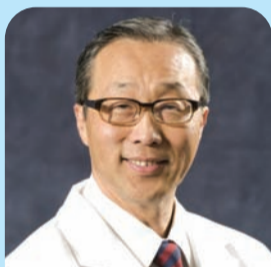
**차민영 내과**

213-480-7770  
 520 S. Virgil Ave. #103, Los Angeles, CA 90020



**한경모 내과**

213-387-7800  
 2681 W. Olympic Blvd. #221 Los Angeles, CA 90006



**조지인 가정주치의**

213-380-8202  
 500 S. Virgil Ave. #501 Los Angeles, CA 90020



**강수웅 내과**

562-868-6256  
 11832 Rosecrans Ave. #127 Norwalk, CA 90650



**백성렬 내과**

909-839-0455  
 20627 Golden Springs Dr. #2D Diamond Bar, CA 91789



**오문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949-552-8217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조션 메디칼 그룹**

714-739-4325  
 626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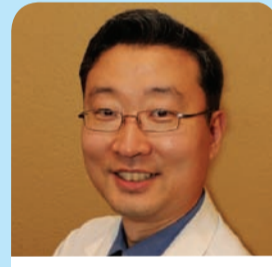
**이선우 류마티스 내과  
이호랑 위장내과**

323-938-0006  
 4465 Wilshire Blvd. #303 Los Angeles, CA 90010



**안우성 내과**

562-916-5020  
 20145 S.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유원계 위장내과**

714-937-9400  
 230 S. Main St. Orange, CA 92868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한인 사회와 기독교의료상조회 회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CMAA**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차할리우드 장로병원은**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나은 경험을 드립니다.

**434베드 규모의 최초 한인 운영 종합병원!**

- 한국 CHA 병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설 및 장비를 보유
-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한인 전문의
- 아시안 환자 전문 병동 및 다수의 한인 간호사 상주

888-522-3455 (대표전화) 323-913-4900 (한국어 안내)

1300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7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www.christianmutual.org  
 CHRISTIAN MUTUAL MED-AID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가입문의

**213-986-8119**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의료비분담사역) 단체입니다.

# 십자가의 진실 추적하던 무슬림, 기독교로 개종하다

##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하다’의 저자 니브엘 쿠레쉬의 이야기



저자 니브엘 쿠레쉬.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모든 위협을 감수한, 한 서구 무슬림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 나왔다. 살인 미스터리 소설을 방불케 하는 이 책 속에서, 마호메트에게 삶을 바쳤던 한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을 추적했다.

니브엘 쿠레쉬(Nabeel Qureshi)는 자신의 새 책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하다: 한 헌신된 무슬림이 기독교를 만나다(Seeking Allah, Finding Jesus: A Devout Muslim Encounters Christianity)'에 "무슬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종종 모든 위협을 감수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썼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나온 이들은 가족·친구에게 절교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용서 받을 수 없는 유일한 죄, 즉 알라 외의 다른 존재를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 영구적인 저주를 받는다.

쿠레쉬는 기독교와 이슬람 중 어느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는 주장의 입증 여부를 그 판단의 시금석으로 삼았다. 만약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기독교가 더 우세할 것이라 여겼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무슬림이 지켜야 할 5대의 무, 샤하다(Shahada) '신앙고백', 살라트(Salat) '기도', 자카트(Zakat) '자선', 사움(Sawm) '금식', 하즈(Hajj) '성지 순례')와 마호메트의 가르침과 쿠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분석했다.

독실한 이슬람교도로 자란 쿠레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며 3일 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다고 믿었다. 또한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가르치지 않으며, 그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도록 성경을 고쳐 썼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쿠레쉬는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리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다. 그가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고 단언했다고 전했다.

그의 기독교인 친구는 예수에 관한 이슬람의 관점에서 잘못을 들춰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 다시 살아나셨음을 입증했다. 쿠레쉬의 친구 마이크는 "셋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엮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다시 살아난 주를 외치기 위해 기꺼

이 죽음을 무릅썼다"며, 단순히 소생한 것이라면 그의 제자들 안에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마이크는 "학자들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쿠레쉬는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Son of Man) 같은 이가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모든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다. 쿠레쉬는 그의 책에서,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자기 자신을 인자(Son of Man)라고 칭하는 부분이 80번 이상 나온다고 썼다. 또 그는 누군가 성경을 수정할 수 있던 시기보다 앞선, 다수의 사본들을 통해 성경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그는 "거의 모든 이슬람교도들은 마호메트에 대해 구두로 배운다. 원본을 통해 배우는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마호메트에 대해 "평화롭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자"라고 배웠다. 그러나 원본을 검토한 후, 그는 마호메트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을 발견했다.

"마호메트는 감옥에 갇혔고, 임종의 자리에서 자신이 흑마술에 걸려 있다고 했다. 후에 자신이 인정했듯 사탄에게서 말씀을 받았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고문하고, 무기가 없는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이끌었으며, 자신이 입양한 아들의 이혼을 조정해 며느리인 제이 나브와 결혼할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

에게 낙타의 소변을 마시라고 했다. 이런 예들이 부지기수다."

쿠레쉬는 이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시하려 했으나 증거는 계속 쌓여갔다. 그는 "이 이야기의 출처는 이슬람의 역사적 기초를 세운 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마침내 그는 예언자 마호메트를 증거하고 있는 쿠란의 신빙성을 묻기 시작했다.

역사를 검토한 그는, 쿠란은 마호메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을 그의 추종자들이 기록한 것임을 발견했다. 그는 "마호메트의 총애가 깨진 후, 이슬람 제국의 3대 칼리프였던 우스만이 쿠란의 정본을 편찬했다. 마호메트가 최고의 쿠란 교사로 꼽혔던 네 사람은 이 쿠란의 최종본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 버전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었지만, 쿠레쉬는 하나님께 마지막 증거를 구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다. 플로리다 올란도의 한 호텔룸에서 기도하던 중 그는, 십자가로 가득 찬 별판의 환상을 보았다.

그는 세 가지 꿈을 꿴다. 이슬람 텍스트를 해독하는 여러 상징들이 나온 꿈에서, 그 상징들은 그를 기독교로 이끌었다. 두번째 꿈에선 그의 크리스천 친구가 잔치로 그를 안내했으며, 세번째 꿈에선 질문을 지닌 이슬람교도들이 회교사원 밖으로 난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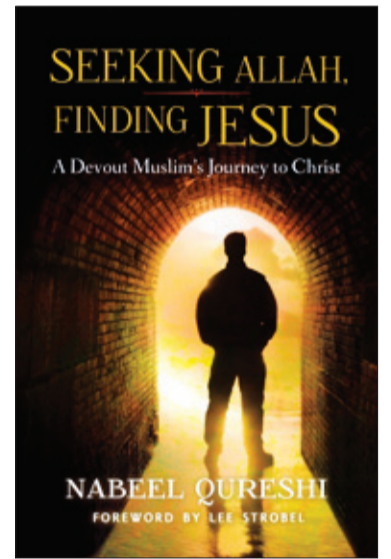
쿠레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를 알리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한다. 그는 이에 대

해 마태복음의 "누구든지 부모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누구든지 자신의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구절을 언급했다.

쿠레쉬의 개종으로 그의 부모는 마음 아파했으나,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친구와 다른 두 명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결성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경을 암송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

쿠레쉬는 친구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슬람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디 한 기자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하다〉의 표지.

## 태블릿 PC에 성경 띄워놓고 선서, 괜찮을까?

디지털 성경이나 온라인 성경의 시대이니만큼, 각종 선서식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성경 웹사이트인 바이블게이트웨이(www.biblegateway.com)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이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가 취임하며 선서할 때, 재판의 증인들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할 때 등에 성경 위에 손을 올리게 되어 있다.

5,057명의 응답자 중 2,882명, 즉 57%는 선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쇄된 성경이어야 한다"고 답했고, 22%에 해당하는 1,097명은 "디지털 이진 인쇄된 것이건 상관없다"고 했

다. 9%인 437명은 "성경 구절이 스크린에 보인다면 괜찮다"고 답했다. 오직 4%만인 220명이 "디지털 성경이 더 좋은 방식이다"고 했고, 8%인 411명은 "디지털이건 인쇄된 것이건 성경은 그런 행사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했다.

뉴욕 주 낫소 카운티의 에드워드 망가노 카운티장은 올해 초 제2기에 취임하며, 아이패드에서 바이블 앱을 구동시킨 후 그것으로 선서했다. 바이블게이트웨이는 그 사건을 보고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단답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3월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신디 김 기자

## 빌 게이츠, "신을 믿는 것 이치에 합당해"

세계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가 최근 인터뷰에서 그의 가족이 성당에 출석하고 있으며 종교적인 가르침이 자신 사업에 자극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빌 게이츠는 3월 27일 발표될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의 도덕적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종교적인 방식으로 키워왔다. 그들은 나와 벨린다가 참석하는 성당에 다닌다. 나는 매우 운이 좋았으며 따라서 내겐 세상의 불평등을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 즉, 최소한의 도덕적 신념이다"라고 말했다.

신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는 "신을 믿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또 "인류에겐 창조신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표했다. 그는 "현재 과학은 종교가 채워왔던 영역들을 어느 정도 채우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신비와 아름다움은 굉장히 놀랍다. 이 경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과학은 설명해 내지 못한다. 임의의 숫자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냉담한 관점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14년 포브스 지가 발표한 억만장자 목록에 따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는 세계 최고의 부호로 선정됐으며, 그의 재산은 7백 6십억 달러

에 이른다. 이 기술 혁신자는 자신 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2000년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 단체 빌과 멜린다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에 돈을 기부하며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 프로그램, 국제 농업, 수자원 및 위생 개발 프로그램, 빈민을 위한 재정 서비스, 미국내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는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성공적 사례를 예로 들며 2035년까지 빈국이 사라지게 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다.

향후 50년에 있어 가장 염려되는 것으로 기후 변화, 거대 규모의 테러리즘, 국제 건강 문제를 꼽았다. 그는 "나는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해지고, 새로운 길을 놓으면 한 국가가 더 좋은 선로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시시각각 불안과 전쟁이 일어나며, 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발명과 진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향후 50년, 혹은 100년 안에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나, 나는 전세계적 유행병, 핵이나 생화학 테러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앞서가는 것만이 살아있는 곳 -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와 염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단, 칼라만 하시면 \$30.

**매직 스테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영화 <노아> 리뷰]

기독교인이 본다면 일말의 기대조차 배신당할 것

영화 <노아>를 봐야 할 이유는 많았다.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는 대런 아로노프스키의 작품일 뿐더러, 무려 1억30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엄청난 규모, 러셀 크로우(노아 역)·제니퍼 코넬리(나메 역)·엠마 왓슨(일라 역)·안소니 홉킨스(므두셀라 역) 등의 열연 등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노아', 바로 '노아'가 아닌가.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위로' '안식' 등을 뜻한다. 당시의 세상에 대해 성경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탄탄하실 지경이었다"면서도, 유독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죄악의 홍수로 뒤덮인 끔찍한 세상에서, 노아만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 '위로'와 '안식'이 되는 존재였는지 모른다.

<노아>를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기독교인이라면, 오늘날 폭력적·자극적 문화의 홍수 속에 성경적 문화 콘텐츠로 '위로'와 '안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그랬다. 앞서 개봉된 미국에서는 이 영화를 본 기독교인들이 거부감을 느꼈다는 소식도 들렸지만, 그래도 '노아' 아닌가. '씩어도 준치'라고, "당세에 완전한 자"가 어디 가겠느냐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영화를 봤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이 영화는 그 같은 기대와 예상을 철저히 배신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영화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하고 성경 속 사건들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뿐, 성경의 주제 및 교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특히 이 영화 속 주인공 노아는 시종 비인간적이고 맹목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노아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방주를 짓는 작업의 의미 등 성경적 교훈에 대해 이 영화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타락한 인류를 철저히 멸절시키고야 말겠다는 노아의 강박증과 광기다.

이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창조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계시를 받았다는 노아조차 막대한 꿈을 꾸었을 뿐이고, 심지어 그 꿈에서조차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를 '무신론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두 발가인'을 비롯해 영화 속에서 노아와 대립하는 인물들조차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그들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마자 노아의 예언이 실현됐음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방주를 향해 달려드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까지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노아>는 '반신론적'이다. 이 영화는 홍수 심판의 불가피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않는데,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류의 죄악상을 그리는 대신 혼란상을 보여 주고, 그 혼란의 주범들이 "하나님 탓"을 함을 통해, "도대체 인류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토록 잔인한 심판을 하셨나요?"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듯하다.

교인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 <노아> 단체 관람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계획을 신속하고 심각하게 재고해 보길 권한다. 물론 신앙적 이유가 아닌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이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미'만을 고려한다 해도 이 영화를 자신 있게 추천하기는 주저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은 <노아>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분노 내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교회에서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노아>에 대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이 영화에 대해 굳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대용 기자



영화 <노아>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방주에 타기 위해 질주하는 사람들.

WEA,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신실한 결합"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과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밝혀

세계복음연맹(WEA)이 최근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WEA는 이 같은 입장을 전하는 가운데 동성결혼에 대한 연맹의 관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WEA는 먼저 성명을 통해서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유엔의 원조 중단 제재 돌 다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맹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복음주의자들은 생명의 편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선물로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든 불의와 죽음을 도모하는 법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은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으로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WEA는 이 처벌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서구 사회와 유엔이 우간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기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거자들로서 우리는 불평등한 차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간다의 동성애 처벌법이 그러하고, 또한 국제사회가 우간다에 가하고 있는 압력이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성애자들을 처벌하는 것과 국제적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모두가 사람

들의 생명과 종교자유를 위협에 빠뜨리는 불의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WEA는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 자비를 모두에게 보이기 원하는 우간다 지역 교회의 편에 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WEA는 이 성명을 통해서 우간다와 서구 사회, 나아가 전 세계 복음주의 교계에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WEA는 동성결혼에 대해 현재 연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에 관해서는 "복음주의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오직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자 평생을 신실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헌신하도록 창조하였음을 믿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족의 중심이 되셔야 함을 믿으며 성령을 통해서만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다"고도 천명했다.

WEA는 이어 "우간다 동성애 처벌법에 반대하는 것이 동성애 행위를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도 밝히며, "우리는 또한 우간다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위협에도 반대한다"고 다시금 입장을 확인했다.

끝으로 WEA는 "우간다의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불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진정된 증거자가 되기 원하는 세계 교회와 우간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교회 목록: LA 지역, 한인성당, 갈릴리선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나성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제일교회,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새도남교회,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영생장로교회, 임마누엘선교회, 지구촌 농업선교회, 충현선교회, 한우리장로교회,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김해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김중호 담임목사,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신승훈 담임목사,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청운교회, 민중기 담임목사, 광부한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한마음제자교회,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김기성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 교회혁신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 ganachurch.homp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일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시키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교회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강영석**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통(通)하여 민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 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 청년

장어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만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새로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누리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어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조지아, 결국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 마리화나 재배 및 운반 금지는 여전히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이 합법화 된 가운데 발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 돼 눈길을 끌었다.

의학적 마리화나(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목요일(20일) 조지아 상원을 통과했다.

2014년 회기를 마친 조지아 의회는 애초에 상정된 '전반위적인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에 여러 타협안과 제한을 덧붙여 일단 발작 등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로 그 사용 대상을 국한시켰다.

House Bill 885, 일명 'Haleigh's Hope Act' 혹은 'Kids Care Act'라고 불리는 이번 법안은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카나비스 오일(Cannabis Oil, 대마초 오일)이 발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암, 녹내장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발작 횟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의학계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구강 혹은 주사 투약만 가능하며, 흡연방식은 금지된다.

하지만 법안에는 6살 이하 자폐증 어린이들의 인지행동요법 치료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 보험회사에서 커버하도록 덧붙였다. 성인이나 노인들의 경우 비용 문제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의 54-0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지만 모순은 여전하다. 조지아 주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재배가 불법이며, 다른 주에서 마리화나 혹은 관련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에서 의학적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도 사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카나비스 오일이나 관련 약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절박한 부모들의 경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의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체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 등에서 카나비스 오일을 구입해 가져 오거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위험도 무릅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상정한 알렌 피크 상원의원은(R-Macon) 법안 통과 이후 "하루에 100번 이상 발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질을 높이는 것을 향한 중요한 한걸음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리화나의 특별한 성분, 일명 '살롯의 거미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분이 아이들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이 합법화 된 콜로라도 주의 경우 이미 2천 명이 넘는 대기인원이 카나비스 오일을 구입하고자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2일, 조지아 상원 건강복지위원회(Health and Human Service Committee)에서는 마리화나의 의학적 사용을 허용한 주에서 구입한 카나비스 오일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경우 기소를 면제하기로 결정 하기도 했다.

미국은 연방법 상 마리화나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며 허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 규정은 사용 목적, 소지, 재배, 불법성 여부 등 주마다 각기 다르다.

예를 들면, 앨라배마 주는 판매는 물론 운반하거나 소지하고만 있어도 불법이다. 재배는 물론 안 된다. 그러나 애리조나, 앨라스크 등은 의료 목적으로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에 소지하거나 운반하면 중범죄로 다룬다. 그러나 아칸소 주는 경범죄로만 본다. 버몬트 주에서는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은 아니지만 1온스 이하일 경우 소지해도 불법이 아니며 그 이상을 갖고 다녀도 교통법칙금 수준의 벌금만 낸다. 캘리포니아도 의료 목적의 사용은 허용하지만 8온스 이상 소지는 불가능하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주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다. 특히 콜로라도 주는 전 미국에서 최초로 의료 목적이 아닌 오락용 마리화나를 승인했으며 워싱턴 주는 정부 차원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이를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차피 입장에서 거래되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해 판매세, 면허세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 미국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계 지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은 대체로 마리화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의료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오락용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디 김 기자

## 수준 높은 교수진 통해 배우고 선교의 현장에 곧장 적용한다



GRS Advanced Certificate Classes 참석차 전 세계에서 찾은 학생들.

글로벌리폼드신학대학원(총장 사무엘 랄슨 박사, 이하 GRS) 'Advanced Certificate Class'가 17일부터 27일까지 제일장로교회(담임 서삼정 목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대만, 중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목회와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진 이들로, 약 열흘간 집중적으로 선교학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이론을 겸비한 탁월한 교수진들의 수업을 듣고자 발걸음 했다.

김은수 박사의 <선교 전략> 수업에 이어, 사무엘 랄슨 박사의 <선교 신학>으로 이어지는 이번 인텐시브 코스에 대해 학생들은 "수업이 부흥회와 같다", "선교의 현장에 있지만 그 면면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수준 높은 강의", "열 명 인원의 소수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각자 몸 담고 있는 현장을 나누고 서로 다른 의견을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어 좋다"고 입을 모았다.

GRS는 미국 내 선교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교수진들을 통해 소수 정예의 학생들로 구성된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목회자와 선교사 뿐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비즈니스 지도자들을 위한 CEO 클래스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미 대만과 태국, 캄보디아, 한국 등에서 선교사들뿐 아니라 현지 학생들도 GRS 산하에서 학습을 해나가고 있으며, 미국에서 공부하기 원하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I-20도 준비 중이다.

학교 창립부터 실질적인 일을 감당해 온 김은수 박사는 "GRS는 미국 선교이지만 운영은 한국교회와 주체가 되어 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은 교수진들을 통해 배우는 동시에 학생들이 실제 사역현장의 다양한 문화적 이슈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한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방향성을 밝혔다.

박현희 기자

# 크리스천들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제 65차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열려



타코마 사랑의교회 이동기 목사.

오늘날 크리스천 가운데 신앙의 동기를 들 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받는 축복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우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만을 기대하다가 고난과 환란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란이 찾아 올 때 어떻게 헤쳐갈 수 있을까?

타코마 사랑의교회 이동기 목사는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의미를 해석하라"고 조언한다.

지난 20일 웨더렐레이 은광교회에서 열린 제 65차 워싱턴 주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강사로 나선 이동기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길, 진리의 길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과 고난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망을 붙들고 고난의 의미와 부르심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한 밤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부르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면서 "믿음과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데,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며 "소망을 가지고 환란 가운데 기도로 인내하며, 고난의 바다를 감사함으로 헤쳐 나가자"로 권면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설교에 이어 기도운동, 찬송교회 박상원 목사가 북한 선교 보고를 했다. 박상원 목사는 중국 내 탈북자 상황과 북한 지하교회 현실을 소개하며 워싱턴 주 성도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워싱턴 주 각 교회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지역 복음화와 열방을 향한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참석자들은 스승계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 스치지역교회, 선교 단체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스치세대 영어권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등 각 나라와 커뮤니티를 위해 △중병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을 위해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워싱턴 주 출신으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의 무사 귀환과 최근 북한에 억류되어 고통 받고 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송환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오는 4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씨애틀 중앙침례교회(담임 제임스 황 목사)에서 열리는 제 66차 기도성회를 소개하면서 워싱턴 주 각 지역 교회 성도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66차 기도성회 강사로는 엄 경섭 선교사 나서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이사야 60:1-3)란 주제로 사흘간 집회를 인도한다.

## 달라진 부활절연합예배-회장단이 준비위원으로 섬겨



뉴욕교협이 부활절연합예배 첫 준비모임을 20일 뉴욕신일교회에서 가졌다.

뉴욕교협이 올해 부활절연합예배 제 1차 준비모임을 20일 뉴욕신일교회(담임 박맹준 목사)에서 열고 본격적인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교협 임원들을 비롯한 각 지역별 준비위원장들이 참석해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준비모임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김영환 목사의 인도로, 이종명 목사 기도, 박맹준 목사 말씀-십자가 고난 전 예수님의 당부(마26:36-46), 전희수 목사 통성기도 인도, 송일권 목사 광고, 이재덕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해', '교협과 회원교회를 위해' 등을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했다.

뉴욕교협이 매년 부활절연합예배의 활성화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특별히 증경회장장과 현직회장 등 회장단이 지역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뉴욕교협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현 회장인 김승희 목사는 우드사이드 지역 준비위원장으로, 증경회장인 송병기 목사는 서니사이드 지역, 직전 회장인 김종훈 목사는 롱아일랜드 지역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해당 지역에서 준비위원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자 회장단들이 흔쾌히 준비위원장을 맡아 섬길 각오를 한 것이다.

이날 준비모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뉴욕교협 임원을 비롯해 올해 부활절연합예

배 준비위원장이 박맹준 목사는 이번 부활절이 뉴욕교협의 각 지역교회들간의 연합과 교류가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 박맹준 목사는 "올해는 늘 있던 예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로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함께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가 은혜가 되고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협이 올해 돕고 후원하고자 한다"고 계획을 말했다.

회장 김승희 목사는 "뉴욕초대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17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고 14년을 준비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면서 "뉴욕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밀려드는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협이 바로 서야 하고 교협밖에 그 역할을 할 곳은 없다는 생각이다.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통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단합된 모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총무 장경혜 목사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이 교제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 많이 모이기 힘들고 은혜로운 연합집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올해 뉴욕지역의 부활절연합예배는 4월 20일 새벽6시 뉴욕의 20개 지역 교회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김대원 기자

## O.C./얼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00 장미연합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한이대대학생연합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달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예배 오전 1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 4959, Cell: 714(308) 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마음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는 성도의 삶과 구원의 상으로 삼힌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오후 12:3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화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침례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광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일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으로 온전하게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천과 생명의 사랑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부름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네트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6: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토)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목요성령침례 오후 7:30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인성준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45(월-금)  
청년예배 3부: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 세계 최초의 캐거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 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로써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물질이면서도 식품테스트에서 안전성이  
인증되어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증서를 받았고, 그 이후 2013년 8월 1일에 미국 일반 의약품(NDC(OTC  
DRUG)으로 승인되어 OTC DRUG로서의 인증서를 받아 정식으로 미국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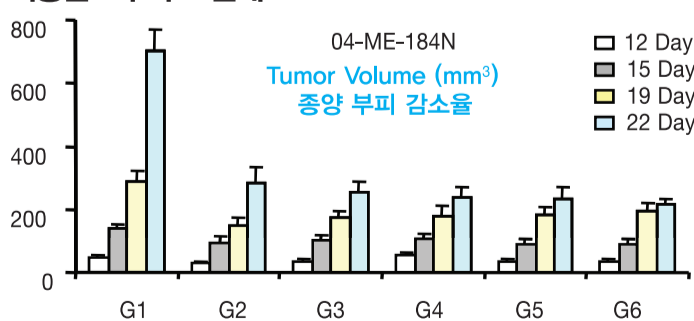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우상의 파괴’, 우상 공격 아닌 젊은이 계몽 위해 썼다”

## 이어령-이재철 양화진문화원 대담 ‘인생’ (2) 우상의 파괴



이어령 박사.

(지난호에 이어서) 이어령 박사와 이재철 목사 간의 대담은 6·25 전쟁 당시, 서울대 국문학과 재학 시절로 옮겨갔다. 이어령 박사는 “당시에는 모두 가난해서 돈이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6·25는 처음으로 평등한 시대였다”며 “집안에선 법과대나 의과대, 경제학과에 가던 등록금을 내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렵게 때부터 문학만 하고 개구리도 못 잡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때 의과과도 문리대에 있어 문리대 간다고 하고 의예과 대신 국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백부님이 국문과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래도 똑똑하다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오죽 배울 게 없어 언문(한글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배우러 대학엘 가느냐고 한숨을 쉬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며 “집안에서 제 덕을 보려다 오히려 저를 먹여 살리게 됐으니,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했다.

이에 이재철 목사가 “지금 시대라면 서울대를 가실 수 있었겠느냐”고 묻자, 이 박사는 “수학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저 같은 사람은 당시처럼 학원도 없고 과열되지 않은 입시 상태로 놔 두면 서울대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조건에선 갈 수 없다”며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운 시대를 거쳤지만, 시대의 수혜자이기도 하다”고 회고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제 시대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초등학생들에게는 절대 세뇌교육을 시켜선 안 되고, 자유롭게 사상을 품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며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해 태어났다”던 국민교육헌장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태어나기 전에 가치가 결정되면 우리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어린 시절 이 박사는 다른 이들이 읽

지 못하던, 단테·셰익스피어 등이 담긴 36권짜리 ‘세계문학전집’을 읽었다. 대학 시절에도 전쟁통에 거의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도서관에서 혼자 독서를 하면서 공부했다고 한다. 책 읽기를 워낙 좋아해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문인들이나 교수들과 대화를 해도 자신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그렇게 젊은이들은 전 세계적인 교양을 몸에 쌓았기 때문에 자력으로도 얼마든지 문학을 할 수 있는데, 왜 기성세대에 희망을 걸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저는 당시 읽었던 세계문학전집을 썼던 그 출판사에서, 나중에 일본어로 <축소 지향의 일본인>을 일본에서 펴내 밀리언셀러가 됐다”고 했다.

이 박사는 “이 말씀은 가정에 돌아가셔서 꼭 시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들에게 동화 읽히면 바보가 된다”며 “지금 이 어느 세상인데 ‘나비가 남니다, 꽃이 웃습니다’ 따위를 읽히면 애들도 웃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초등학교 시절 ‘어린이가 읽을 수 없는’ <파우스트>를 읽었기 때문에 ‘뇌세 포들이 미쳤다’는 것. 그는 “글을 읽으면서 상상력과 추리력과 직관력이 한참 자라는 뇌에 엄청난 불을 붙였다”며 “지금 기억력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때 불은 상상력·추리력·직관력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했다.

### 문단 거목(巨木)들 모두 비판하는 매니페스토 신문에 발표

“그들 인준 받아 출세하려 한다면, 젊은이라 할 수 있는가?”

이후 만 22세 5개월이던 1956년 5월 6일, ‘서울대를 갓 졸업한 신출내기 졸업생’이 당시 신생 언론인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라는 평론을 실어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일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재철 목사는 “오늘 대담의 제목이기도 한 이 글은 수필이나 칼럼 또는 어느 장편(掌篇·conte) 소설이 아니라, ‘문단의 신(神)’으로 군림하던 원로들을 우상(偶像)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글이었다”며 “선생님은 ‘시대 착오자들’을 파괴하는 우상 파괴자를 자임하셨고, 그 내용은 대단히 무섭다”고 소개했다.

당시 ‘문단의 황제’였던 소설가 김동리에게는 ‘미몽의 우상’, ‘모더니즘의 기수’를 자처한 조향에게는 ‘사기 사(사기꾼)의 우상’, 농촌 문학가 이무영에게는 ‘우매의 우상’, 신진 평론가 채일수에게는 ‘영아(?)의 우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고, 이외에도 황순원·서정주·염상섭 등 기라성 같은 당대의 문인들도 비판의 칼날을 피해가

지 못했다. “왜 이런 걸 쓰셨느냐”는 이 목사의 질문에 “그들을 우상이라 부른 것은 그분들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이 한심스러웠기 때문”이라며 “그분들의 문학을 이상적인 문학 모델로 만들고 그들의 제자가 되어 인준을 받아서 글을 쓴다면, 우리에게 젊은이란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털어놓았다. 이 박사는 “그분들을 우상이라고 욕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당시 젊은이들, 동시대인들의 출세지향적이고 추천을 받아 등단하려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제 눈에는 ‘똥 빈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굽하는 사람’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또 “<우상의 파괴>를 썼을 때, 제 분노가 비단 문단에 대해서 뿐이었겠느냐”며 “당시 우상 중의 우상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전시(戰時)였기 때문에 당시 대학생들은 그 흔한 배라 한 장도 못 붙였다”며 “신문에 그런 글을 쓴다는 게 생각하기엔 쉬운 일 같지만, 관찬대는 대학 나온 22세의 장장한 젊은이가 교수도 될 수 있고 잘 보이면 문단에서 출세도 할 수 있는데 제 앞길을 모두 몽땅 두들겨 패서 막았으니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하지만, 국민들이 우상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진 것”이라며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고 이로써는 훌륭하셨지만, 새로운 꿈을 열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 창조적 모델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들을 파괴하고 벗어나야만 20년 후를 기약할 수 있었다”고 했다.

### 유명해지려 신문에 글 썼다고? 그럼 당시 모두들 따라했을 것

### 싸수 자르지 않고 감싸주신 문단 어른들 덕분에 이 시대 열려

이어령 박사는 “그러나도 사람들은 제가 유명해지려고 그런 글을 썼는데, 때려서 유명해진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억울해했다. 먼저, <우상의 파괴>는 매니페스토(manifesto·일종의 선언)이지 평론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신문 전면에 실어보아야 원고지 12장 남짓인데, 거기 무슨 평론을 쓸 수 있었겠느냐”며 “이를 신기 전에 문리대 학보에 ‘이상론(李箱論)’을 썼으니 먹혔지,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육두문자를 날렸다면 ‘미친 놈 나왔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론’에 대해선 “난해 작가로 몰아 난해하지도 않은 작품을 오독(誤

讀)하여, ‘이상’을 우리 문단에서 잊힌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그걸 당시 대학 4학년생이 ‘의식의 흐름’ 수법으로 분석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기성세대를 치고 나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작가를 먼저 복권시키고 한국 문단에 소개하면서 그렇지 않은 작가들을 비판했던 것”이라며 “서정주 선생이 아주 훌륭한 시인이지만 그의 언어는 그시대의 언어이지 우리의 언어는 될 수 없지 않느냐.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나면 그 후에는 희곡 작가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그는 “100명의 서정주는 필요 없고, 하나로 족하다, 요즘 말로 ‘짹짹’을 만들지 마라”고 외쳤다.

그는 “(우상이라 비판했던)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시 제 싸수를 얼마든지 지를 수 있는 권리와 권력과 문단 형편이 있었음에도, 그토록 혹독하게 욕하고 ‘파괴’하겠다, 화전민으로서 방화하겠다”는 사람을 감싸주셨다는 점”이라며 “이렇듯 다음세대 젊은이들의 숨구멍을 그나마 틔워준 선배님들이 오늘의 이 시대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반성할 점’으로는 “제가 쓰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저에 대해 <창조의 아이콘>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 ‘아이콘(icon)’이 바로 우상 아닌가”라며 “50년 전 ‘우상을 파괴해야 한다’고 쓴 체계 우상이라 부르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우상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쳐도 우상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또 “우상과의 싸움은 기독교만의 싸움이 아니다”며 “우리 자유인들은 절대 우상을 만들어선 안 되고, ‘내 언어로 짤막한 내 인생을, 지문처럼 죽으면 사라질 한 생애를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령 박사는 “구약성경을 보면 모두 왕·임금·선지자·예언자들 이야기이지만, 신약에는 이름 없는 창녀들, 영원히 역사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마리아나 나사로, ‘달리다룸’으로 일어난 소녀 등 개인의 얼굴이 처음 등장



이재철 목사.

한다”며 “완벽한 이상(理想)이 신·구약에 있다면,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으니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가 있고, 딱 한 사람-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다”며 “제가 그걸 몰랐기에 당시 말한 ‘우상’ 중에는 예수님도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 최초의 언어는 ‘우상의 파괴’였지만, 지금은 창조와 생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예전에는 부수고 죽이고, 모든 것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80대가 되면서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20대의 ‘불의 언어’가 ‘물의 언어’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재철 목사는 “한 인간이 사회에서 아무리 결출하더라도, 결국 혼자서는 될 수 없고 시대와 맞물려 있기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시대에 빛나는 자’라며 “그래서 사회와 시대 앞에 이를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지만 누군가를 우상으로 만들려 해서도,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말로 대담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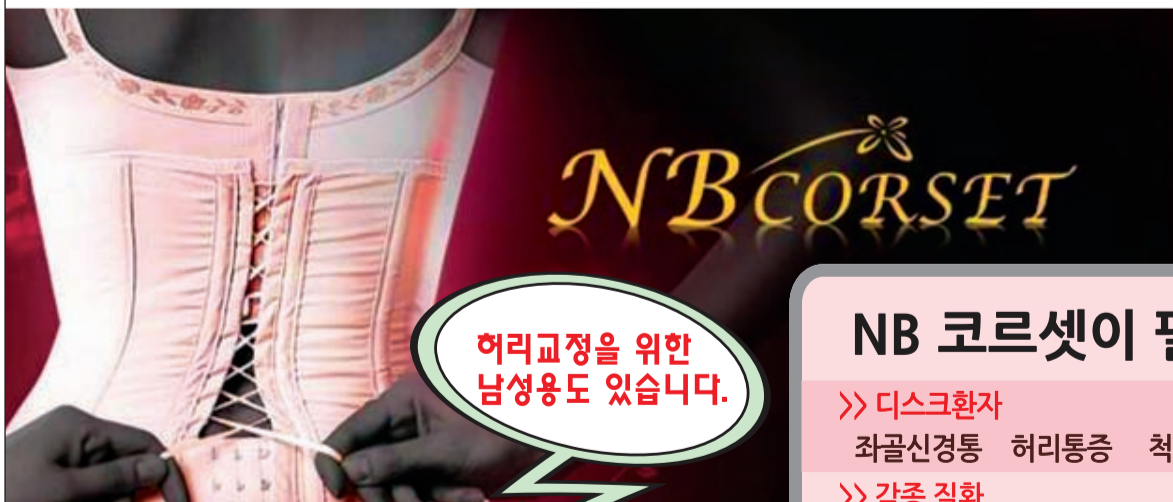
이대용 기자



이어령 박사(왼쪽)과 이재철 목사(오른쪽).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김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김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뢰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침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액 검사 \*체질 검사

# 나이스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선교하라”

## 나이스크 포럼 필리핀 2014, 한국 대전·광주본부 설립예배, 감리교 목회자 대상 나이스크 열려

### 나이스크 파운데이션 법인 설립, 나이스크 월드 컨퍼런스 2015 필라델피아서 예정

#### 나이스크포럼 필리핀'14 개최돼



나이스크 포럼 필리핀(Nyskc Forum Philippines'14) 예배 참여자들의 모습.

나이스크 포럼 필리핀(Nyskc Forum Philippines'14)이 필리핀 본부와 지부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2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GTS 교수인 김은목 목사의 사회와 준비위원장 조현목 목사의 대표기도 그리고 축도에는 자문위원 김은호 목사가 말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최고선 목사는 이사야 6:1-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 회복이란 어떤 것인가”를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GTS 황 디모데 교수의 “Theology of Restoration” 강의가 있었으며 저녁 성회가 있었다.

둘째날 새벽기도회에서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만남의 장소이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5:22절, 사도행전행 2:1-4 절의 말씀을 통해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고 전했다.

둘째날 첫 강의는 GTS 전남수 교수의 “Theology of Nyskc”에 이어 강효 열 교수의 “Nyskcism”으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오후 첫 강의는 GTS 김은목 교수의 “예배회복개론”을 강의 하면서 Nyskc World Mission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어서 최고선 목사의 Nyskc PDP 강의가 이어졌으며 저녁 성회는 예레미야 31:21-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이스라엘 처녀, 패륜의 딸아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방황과 회복의 주제로 설교가 있었다.

마지막 날에는 새벽기도회에 이어 오전에 앞으로 필리핀과 동남아에서의 예배회복운동을 위한 토의와 임원 임명식 그리고 임원회를 통해서 2014년 9월 말에 Family Conference를 열기로 잠정 결정하고 폐회 예배를 드렸다.

이날 폐회예배 사회는 GTS 김은목 교수가 맡았으며 기도에는 NWM 앵겔로스 지부장 김만조 목사 그리고 광고에는 필리핀 본부장 조현목 목사 그리고 설교와 축도에는 NWM 대표

회장 최고선 목사가 맡았다.

한편 설교는 요한복음 11:1-15절 까지 말씀을 통해서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배회복운동(Nyskc Movement)은 사람이 낮에 다닐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 며 “신앙이 무너져가는 세대들이 이제 낮 12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특별히 이날 NWM Philippine HQ 임원 임명식이 있었다. 자문위원에 김은호목사(마닐라 새생명교회)와 2013년까지 필리핀 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이교성 목사(마닐라 명성교회)가 위촉됐다.

이날 필리핀 본부장으로 임명된 조현목 목사(필리핀임마누엘교회)는 “앞으로 필리핀 본부가 Nyskc Movement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과 선교지에 특성을 잘 살피면서 예배 중심의 선교를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그보다 우리의 우선과제는 회복의 신학을 비롯하여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예배회복을 위한 학문적인 것을 본부가 배워나가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2014년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더욱 예배중심의 목회와 선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캄보디아의 병원에서 원목으로 활동 중인 이좌동 목사를 캄보디아 임원으로 세우고 이번 포럼을 통해 선교의 현장이 예배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Nyskc Movement를 소개하겠다”며 그곳에서도 예배회복운동을 위한 강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나이스크 포럼 필리핀(Nyskc Forum Philippines'14)

#### 한국 대전본부 설립예배 드려

NYSKC 한국 대전본부가 2월 26일 오전 11시 대전시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세민교회(당회장 류재이 목사)에서 설립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다.

1부에는 NWM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의 “Introduction of Nyskc” 강의가 있었으며 2부에는 설립예배가 GTS

교수 김은목 목사(LA 평화교회 당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표기도에는 대전본부 자문위원 정구보 목사, 설교에는 최고선 목사가 전했다.

이사야 6:1-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전한 설교에서 최 목사는 “예배는 문자적으로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바다에 완전히 얹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준 것처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서 “오늘날 교회를 건물로만 인식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며, 성막과 성전 그리고 단’ 그리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예레시아만이 아니라 시나고구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설교에서 최고선 목사는 “왜 예배회복이 필요한가? 그것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배의 본질을 찾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 나이스크 대전 본부가 설립됨에 따라 앞으로 임원 목사들을 중심으로 한 달에 한 번씩기도회를 갖고 미국의 세계본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연구하며 예배회복운동을 더욱 확산하는데 노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주 교회들이여 예배를 회복하자

광주는 호남신학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신학교와 1800교회를 가지고 있는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타 지역의 복음화율에 비해 25%의 괄목할 만큼 복음이 전파된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Nyskc World Mission은 이곳 광주에서 광주본부 설립예배를 2월 27일 광주무등교회(당회장 이원재 목사)에서 드렸다. NWM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를 비롯해 동행한 GTS 교수들과 광주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시작되어 1부에는 “Introduction of NYSKC” 강의, 2부

에는 설립예배를 드렸다.



나이스크월드미션은 광주본부 설립예배를 2월 27일 광주무등교회에서 드렸다.

#### 한국 감리교 중심 나이스크 세미나 집중 논의

지난 2월 27일(목) 처음으로 감리교단 중심으로 개최된 목회자를 위한 Nyskc Movement(예배회복운동)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바른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귀한 시간이었다고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실무를 담당한 임정설 목사(이천로렐교회)와 박현철 목사(진천 제일교회)는 세미나 강사였던 GTS Prof. Boaz 류 목사를 주일예배에 초대하여 귀한 사역과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나이스크 파운데이션 법인 설립

Nyskc Movement(예배회복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관으로 Nyskc World Mission을 세워 활동한지 21년이 되는 2015년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신 좀더 큰 비전을 그리기 위한 Nyskc Foundation이 미 오하이오주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미 전문 로펌을 통한 작업으로 이루어진 ‘Nyskc Foundation’이 세워짐에 따라 Nyskc World Mission을 비롯한 부설기관이었던 회복의 신학연구학회(Nyskc Learned Society)를 비롯하여 “Goshen Theological Semi-

nary” 도서출판 미클랏, 기간 예배회복지 등 모든 기관들이 Nyskc Foundation으로 귀속되게 되었다.

그 동안 비영리사업으로 구령사업과 예배회복운동에 20년을 앞장섰던 Nyskc World Mission HQ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미 정부나 혹은 재계 또는 뜻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지원에 있어 법적 준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Nyskc Movement를 더욱 힘있게 추진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최고선 목사가 설명했다.

#### 나이스크월드컨퍼런스2015예정

2015년을 NYSKC MOVEMENT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그 일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Nyskc World Conference'15가 미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Eastern University 1300 Eagle Road St. Davids, PA 19087-3696)

“예배와 축제”라는 주제의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NWM HQ는 필라델피아에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갖고 필라지역의 교회협의회와 목사협의회와의 실행위원회에서 Nyskc World Conference에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을 토대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은 이대우 목사(필라한빛교회)를 임명했다.

한편 3월 14일 NWM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와 Nyskc World Conference'15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대우 목사는 Nyskc 미 동중부본부(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주, 뉴저지, 남부)에서 만나 준비위원회 발족예배 및 세미나 그리고 포럼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5월 8일(목)에 발족예배 및 세미나를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5월에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열리게 되는 Nyskc Symposium'14와 6월 30일부터 7월 3일에 있을 Nyskc Family Conference TX'14에 적극 참여하고 9월에는 필라지역에서 Nyskc Forum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민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다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어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 빼앗긴 자에게도 봄은 오는가?



정진욱 목사  
시온루터교회 한인담당

1926년 시인 이상화는 《개벽》(開闢)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발표했다. 이 시는 일제 식민지 시절 나라를 빼앗겨 얼어붙어 있을 땅을,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어 일으킬 봄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몸부림, 억압받는 한국 민족의 강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다.

얼마 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사랍과 금메달을 빼앗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가 있다.

안현수 선수는 2006년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금메달 3개를 획득한 선수다. 그러다 2010년 부상과 빙상 경기 연맹과의 갈등으로 그는 러시아로 귀화하게 되었고,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8년 만에 다시 한번 쇼트트랙 전 종목 메달을 석권했다.

이 일로 인해 한국 사회 여기저기서 아쉬움과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안현수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를 경쟁국에 빼앗긴 아쉬움과 불만으로 사람들은 분노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에게도 봄은 오는 것일까?

그러나 필자는 이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안현수 선수를 생각하면 분명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아쉬움과 상실감을 뒤로하고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있는 사

할린은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으로 유배를 간 곳으로 유명하다.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후에는 한국 동포들이 적색분자라고 하며 모든 “고려인들”을 다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냈다. 스탈린 사후에는 다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옛 삶의 터전을 찾아 중앙 아시아로 옮겨왔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카레이스키”라고 알려진 고려인들이다.

그들은 수많은 세월을 강제 노역과 유배로 보내야 했다. 눈물로, 아픔으로, 고통과 좌절 속에 수십 년을 이방인으로 살아왔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로 귀화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귀화와 동시에 러시아에서 명성을 떨친 우크라이나-고려인 혼혈 록 가수 빅토르 최를 따라 빅토르 안으로 바꾸었다.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번 올림픽에서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 러시아 국기를 흔들 때 그곳에 있는 수백만의 고려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카레이스키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안현수 선수를 통해서 오랜 세월 한 맺힌 응어리가 뭉뚱 씻겨 내려갔을 것이다. 수십 년간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고려인들에게 안현수는 큰 희망과 기쁨을 준 것이다.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러시아 국기를 흔들 때, 그것은 모든 고려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이 러시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수십 년 간 강제 노동과 유배로 빼앗긴 자의 삶을 살아왔던

고려인들에게 봄의 기쁨을, 큰 위로와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한국인의 마음을 품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안현수를 빼앗겼다는 아쉬움보다 도리어 기쁨이 더 크게 다가온다. 대제국 러시아가 한국인 출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받고 힘을 얻으니 세상에 이 같은 역사가 어디 있겠는가?

교회력 상으로 우리는 사순절 혹은 수난절을 보내고 있다. 이 사순절을 가리켜 영어로는 Lent 라고 한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 그 본래 뜻은 ‘봄’이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를 목상하는 이 사순절을 왜 ‘봄’을 뜻하는 라틴어 Lent 로 표현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생명의 기운이 온 땅을 뒤덮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도 수난과 고통의 길은 있지만, 그것은 신앙의 봄을 준비하는 기간

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길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순절은 ‘봄’을 뜻하는 말로 담아 표현한 것이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 상에서 예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다. 하나님의 전능한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너무나 힘없이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겼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분노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힘없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맞이할 수가 없었다(고전 1: 22).

유대인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인간 이성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했던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도대체가 이성으로는 풀 수가 없는 아이러니였다. 왜 강자가 죽어야 하는가? 중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왜 하나님이 꼭 지어야 하는가? 인간 이성으로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지혜로는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헬라인들의 생각이었다(고전 1: 21-22).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짚었다. “힘과 능력을 원하는 유대인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지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인 여러분들에게는 바보 같은 어리석음일 뿐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메시아요, 구세주이십니다(고전 1: 23-24).”

만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 오셨다면 유대인들이 바라는 기적

과 표적을 행하셨을지는 몰라도, 헬라인들이 바라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될지는 몰라도, 인간을 위한 구원은 없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빼앗긴 자로서 아니라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곧 부활의 봄을 기다리는 자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은 부활의 때에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환희로 바뀔 것이다. 죽음은 생명으로, 좌절은 희망으로, 고통은 치유로 바뀐다.

따라서 사순절은 다가올 그 부활의 봄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들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자들이 빼앗긴 자의 삶을 살아간다. 자유를 빼앗겼고, 건강을 빼앗겼고, 물질을 빼앗겼다. 억압과 아픔, 배고픔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그런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면 어떨까? 추운 겨울이지만 봄이 오고 있다고, 십자가의 고통이지만 부활의 봄이 오고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빅토르 안’이라는 한 사람이 수많은 고려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빅토리 그리스도인’(Victory Christian)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리와 구원 자임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4)

####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4회)

Where are you now?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I am at my office.  
나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Where were you yesterday?  
당신은 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I was at my brother's home.  
나는 나의 동생의 집에 있었습니다.  
What did you do there?  
당신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I had a meeting with my brother.  
나는 나의 동생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4회)

Jesus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in the temple. He

also saw money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So he took some rope and made a whip. Then he chased everyone out of the temple. He turned over the tables of the money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예수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가축을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밧줄로 회초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두를 성전에서 쫓아냈다. 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동전을 헤

쳐 버렸다.

####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4회)

John Bunyan had very little schooling about 2-4 years only. He was educated at his father's house with other poor country boys. Even though he was not educated well, he started writing with his natural passion. He describes himself as having led an abandoned life in his youth, but there is no evidence that he has lived immorally. The Pilgrim's Progress is one of the

most widely known allegories ever written.

존 번연은 학교공부를 2년에서 4년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다른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 그는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그의 타고난 열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는 스스로 어린 시절에 버림 받은 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부도덕하게 살아 왔다고 할만한 근거는 없다. 천로역정은 우화적으로 쓰여진 책으로 이미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의 중의 하나이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강인훈 | 베다니

저자는 군청 공무원 이면서 기독교신우회 담당목사라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자라면서 부정적인 말로 인한 부모의 안타까운 삶을 목도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며 말의 위력과 중요성을 배웠다. 어른들은 '왕의 법 선포문', 학생들은 '나의 미래 선포문'으로 인생이 변화된 기적과 감동의 실화를 담았다.



내 인생을 바꾼 31일 기도습관  
이대희 | 브니엘

〈내 인생을 바꾼 31일 성경통독〉의 저자가 이번에는 한 달간 실천할 수 있는 기도습관 서적을 펴냈다. '나를 죽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체험하기'를 부제로 하는 이 책은 기도에 대하여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좋은 기도습관 정착을 추구한다.



김남국 목사의 창세기 파헤치기 1  
김남국 | 두란노

저자는 성경은 하나님의 대하드라마이고, 창세기 1-11장은 그 1-2편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드라마도 1-2편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힘들듯, 창세기도 1-11장을 모르면 장대한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창세기의 선언이자 모세오경의 선언이며, 성경 전체의 선언이다.



나의 갈보리 언덕  
로이 헛손 | CLC

저자의 여덟 번째 시리즈. 1940년대 동아프리카 사역을 통해 부흥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회심부터 은퇴까지의 일대기를 자서전처럼 썼다. 초창기 좌충우돌하던 사역 모습과, 가는 곳마다 변화와 부흥을 불러 일으키는 복음 설교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 REVIEW

### '신앙' 이 되어버린 IT기술, 과연 우릴 구원할 수 있나?

IT기술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생각의 흐름이나 구조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음악이 듣고 싶어도, 책을 뒤지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음반가게를 찾는 대신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몇 차례 만지작거리면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이미 IT미래학자이자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다음과 같이 예고했다. "인터넷 사이트와 서비스에 익숙해지고 의존하게 되면서, 나의 습관과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 것도 정상은 아니었다. 나의 뇌가 기능하는 방식이 바뀐 듯했고, 나는 한 가지 일에 몇 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 나의 뇌는 굶주려 있었다.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랐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더 허기를 느끼게 된 것이다."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라고도 불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에게, 이것의 창조자들은 그야말로 '신(神)', 요즘 말로 '~느님' 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미 2006년 6월호에서 스티브 잡스에게 'iGod'이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검은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은 그가 신제품을 출시할 때-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순간-추종자들은 마치 사이버 종교 신자들처럼 며칠 전부터 줄을 서고, 현금을 내듯 기꺼이 지갑을 열어 그들을 '식구로' 맞아들이며 그 북을 누린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10억명, 모바일 기기 이용자 수는 22억명, 인터넷 사용자 수는 23억명에 달한다고 한다.

풀러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페퍼다인대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미디어·IT 전문가 크레이그 뎃와일러(Craig Detweiler)는 'iGods' 에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영적인 진단을 시도한다. 기본적으로

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고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기술의 소산'으로 여기면서도, 이를 통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에 닿기 위한 탐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창 11장) 묻고 있다.

美기술문화잡지 <와이어드(Wired)> 창간자이자 그 이전 <홀 어스 카탈로그(Whole Earth Catalog)> 잡지 스티브 잡스에게 영감을 줬던 케빈 켈리(Kevin Kelly)는 이와 관련,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그 틈 사이로 기술이 계속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본다. 오늘날은 가치와 의미의 결여 때문에 우리 대신 기술이 결정을 내려준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에만 귀를 기울이며, 다른 소리는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 견고한 신앙이 없을 때, 기술은 우리를 조종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종교, 특히 교회도 기술 이용에 적극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들일수록 대부분 최신 스마트 기기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고, 이를 교



iGods | 크레이그 뎃와일러 | 아버사원 | 408쪽

고 꼬집는다. 좀 다른 측면이지만, 베리칩(VeriChip)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이 대표적이겠다. "과거에는 신학을 축으로 기술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신학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책이 주목하고 분석하는 '아이갓' 들은 애플을 비롯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다. 저자는 "이 각각의 IT 기업들에서 우리는 창조 내러티브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창업자들이 보잘 것없는 출발 단계에서 거대한 위계질서와 지배력에 맞서 뻔뻔스러운 만큼 무모한 용기와 도전으로 전세가 뒤집히는 구도는 하나님이 주변인들을 위해 왕국과 나라들에 맞서게 했다는 성경이야기와 유사하다"면서 "미국인들의 낙관주의는 기술에 대한 신앙으로 변모했지만,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이러한 '아이갓'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모든 기술들은 원대한 약속을 지켰고, 접근성을 허락했으며, 우리의 미적 감각을 높이며 권력을 가지고 움직였다. 기술은 대체 종교가 됐다. 우리는 서비스를 위해 사생활을 희생시켰다. 이 모든 효율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지식과 이해에 대한 갈망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지닌 한계를 포용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므로 겸손을 연습해야 한다. 이대웅 기자

<p><b>세종 송보감</b></p> <p>“충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p>	<p><b>뇌보감 골드</b></p> <p>“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p>	<p><b>高麗발효삼</b></p> <p>“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액스 생명연구 개발”</p>	<p><b>세종 요로청보감</b></p> <p>“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p>	<p><b>퍼스트레이디</b></p> <p>“여성건강, 생리활성” “불가리아 장미오일 캡슐”</p>
<p><b>Biotech SEJONGBIOTECH, INC 문의 :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b></p>				
<p><b>판매처</b>          코리아타운 세종바이오텍 엘에이지사 (월서와 버질길 복음방송2층, 213-383-8899)          거주건강종합화점 (한남체인권리관 천홍산상업, 213-388-1234)          비타린 아울렛 (아사마켓 건너편, 213-382-1252) 발론캘리포니아미국마켓213-388-4100          글렌데일 한국약국 (글렌데일 한국마켓 내, 818-637-7708)          세리토스 웰빙건강&amp;선물 (세리토스 시몬마켓내, 562-403-0282)          부에나팍 네이처영양센터 (부에나팍 한남체인내, 714-690-0120)          샌디에고 굿모닝약국 (레이시온로드 교차로 스타벅스커피상업내, 858-268-1660)          가든그로브 네처건강센터 (9852가든그로브빌딩, 714-539-3763)</p>				

**초스피드 다이어트**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 “중세 이단정죄는 자가당착과 적반하장... 한국교회는?”

최덕성 박사, 교회사학회 · 복음주의역사신학회 학술대회서 발표

“중세교회의 이단정죄는 교회개혁가들을 이단으로 몰아 정죄하고 처형하는 자가당착과 적반하장의 역사를 되풀이했다.”

22일 서울 양재동 햇빛트리니티대학교(총장 김상복 목사)에서 열린 한국교회사학회(회장 이정숙 교수)와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회장 윤종훈 교수) 공동학술대회에서 최덕성 박사(브니엘신학교 총장)는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중세교회의 이단들은 성격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문화적·감정적·정치적 동기로 정죄된 이단이며, 특히 동·서방 교회는 서로를 이단으로 단죄하는 등 기독교회 전체를 이단논쟁에 휩쓸시켰다. 둘째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바울당원주의자들이나 보고밀주의자들, 카타리파 이단 등으로, 예크하르트의 신비주의나 피오르의 요아킴의 종말론 등과 함께 이들의 이단사상은 부패한 교회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신앙과 행위의 ‘권위’와 관련된 이단으로, 이들은 성경이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던 ‘이단 아닌 이단’들이었다.

중세교회는 교회의 결정을 절대시하는 ‘교회教(Churchianity)’ 관점이 크게 작용해, 기독교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세력에 대항하는 이단들에 대해 강력한 박멸운동을 펼치게 했다. 여기에 무지, 오해, 적대감, 기존체제 보호, 폐쇄성 등이 가세하자 ‘진짜 이단’ 뿐 아니라 무죄한 이들과 성경적 진리를 고백하는 이들까지 이단이라 정죄하고 죽이는 오류를 범했다. 최 박사는 “당대 최대의 살인집단은 바로 교회”라고 일갈했다.

최덕성 박사는 “중세교회의 잔혹성과 마성(魔性)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기독교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으로 이단을 교화하려던 순전한 기독교인들까지 박해했다”며 “교회는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해 가면서 선량

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부패와 부조리를 개혁하거나 구조적 모순을 제거하지 못한 채 오로지 힘으로 이단을 정죄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중세교회의 이단박멸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중세 후기 이단자와 이단운동을 발판 삼아 지은 ‘장려한 건축물’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자로 단정한 반면,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후기의 교회를 이단시했다. 존 칼빈(John Calvin)은 그 교회를 우상숭배 집단, 거짓 교회, 사탄이 더럽히고 부패시킨 교회제도라고 비판했다. 최 박사는 “중세교회의 이단정죄 역사는 ‘교회가 이단이라 단죄했다’ 하여 반드시 이단은 아님을 말해 준다”며 “이는 이단정죄의 규범 또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평적 검토를 촉구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 박사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개신교회는 진리에 목숨을 건 ‘용감한 이단자’들-이단자 왈도, 위클리프, 안 후스, 루터, 칼빈 등-의 수모와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중세교회 이단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교회’라는 조직체로부터 이단으로 단죄됐다 하여 모두 진정한 의미의 이단 또는 이단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힘의 논리, 기독교, 다수 판단, 정치 폭력, 무지, 사소한 허물 침소봉대, 폐쇄성, 기독교 보호 목적 등 성경을 표본 삼지 않고 성경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이단정죄는 유효하지 않다”고 정리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논란을 들었다. 그는 “지난해 초, 한국 신학자들 일부가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복음 없는 선교 중심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들려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성경불신주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WCC 총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zoe)의 복음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



최덕성 박사(가운데)가 중세교회의 이단정죄에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총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이단적 선교-전도 선언서를 선포했다”며 “그러나 한국의 교회, 이단 전문가, 신학자들은 이를 모두 방관했는데, 이렇고도 한국교회의 이단정죄가 힘의 논리, 다수의 시각, 폐쇄성, 교회교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과 성경적 진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후에는 중세교회의 이단정죄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먼저 동·서방교회 분열의 주원인은 누가 전체 교회를 이끌어 갈 주도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었다.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를 교황의 지배권에 예속시키려 했지만, 동방교회는 신앙 문제의 최종 권위가 로마 주교에게 있지 않고 주교들의 회의(공의회·Council)에 있다고 보면서 독자성을 고수했고, 서방교회 교황좌의 지배권 또는 수위권(Supremacy)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둘은 서기 1054년 분열됐고, 1천년 가까이 유지됐던 기독교회의 단일성은 깨졌다. 1204년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상대로 일으킨 제4차 십자군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동방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비잔틴 기독교’는 성상숭배 논쟁(Iconoclastic Controversy)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 성직자들은 성상숭배를 선호했지만 ‘평신도’였던 동로마제국 황제는 이를 우상숭배 행위로 여겼고, 성상 옹호와 철폐를 둘러싼 교회와 황제의 갈

등은 국가와 교회의 우열 관계까지 뒤섞여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결국 동방교회는 제7차 니케아 공의회(787)를 통해 성상 옹호론자들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 무렵 소아시아 동부지방에서는 ‘바울당원주의자들(Paulicians)’이라는 이단이 급격히 확산됐다. 자신들의 신앙 계보가 바울에서 시작됐고, 박해를 받은 신자들을 거쳐 이어져 왔다면 서성상철폐론을 지지한 것. 이는 플라톤의 이원론 양식 안에서 영지주의와 마니교, 고대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지방의 미신을 기독교 신념과 혼합한 사상이었다. 또 그리스도의 양자론(양子論)을 받아들이고 시편과 신약성경만을 정경으로 여겼던 동방교회의 보고밀주의자들(Bogomiles)은 기존 교회조직과 체계를 부정했다.

그런가 하면 11세기 서방교회에서는 ‘카타리파(Cathari)’가 번성했다. 프랑스 남부 알비젠스 지방에서 일어난 이들은 마니교와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기초하는 등 바울당원주의·보고밀주의와 비슷했다. 카타리파는 12세기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프랑스에 급속히 확산됐고, 교황청은 박멸작전을 펼쳐 종교재판을 설치하고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중세 기독교의 영성과 신비사상의 극단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마이스터 예크하르트(Meister J. Eckhart)의 신비주의는 범신론적 모습을 보이면서 이단으로 정죄됐고, ‘성령파’

로 일컬어지면서 기존 교회의 성적계급을 거부했던 ‘엄격파’, 피오르의 요아킴(Joachim de Fiore)도 있었다.

이후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잇따라 이단으로 정죄당해 극심한 박해를 받는다. 왈도파(Waldesians)는 성경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으며 그 가르침을 단순히 실천했다. 최 박사는 “그들은 ‘거룩한 공-보편 교회를 믿는가’를 물으면 ‘예’ 하고 답했지만,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가’라고 물으면 ‘주저했다’며 ‘교계를 본질로 여기는 로마교회 시각에서 왈도파는 분리주의 집단이었으나, 개혁교회 관으로 보면 성경이 제시하는 본질에 가까운 신앙고백 공동체 성격의 교회였다’고 했다. 왈도파 신앙운동은 부패한 성직자들과 말씀이 빈곤한 로마교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불만’ 표시였고,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왈도파는 남부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John Wyclif)도 교회 본질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졌고,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전통이나 통치자들의 권위보다 수위(首位)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경을 교황의 소유물로 보는 로마교회의 견해를 거부하고 성경의 권위와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변역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이는 윌리엄 틴데일(William Tyndale) 등 성경번역 추종자들에 의해 실현된다. 그는 또 화체설을 부정하는 성만찬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단사상으로 정죄됐고, 소천 후 ‘시신 화형식’을 당한다. 이 외에 위클리프의 사상을 책으로 접한 얀 후스(Jan Hus)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불길처럼 타오른 교회개혁운동의 기수였지만, 이단으로 정죄당해 화형당했다.

최 박사는 “중세교회 초기의 동서방교회 갈등과 성상숭배 논쟁의 이단정죄는 자가당착이었고, 후기의 이단정죄는 적반하장이었다”고 정리했다.

이대윤 기자

## 강남교회 성도 1,424명 장기기증 서약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간의 절기인 사순절을 맞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나눔실천 움직임이 뜨겁다.

강남교회(담임목사 고문산)는 지난 23일 사순절을 맞아 예수의 고통에 함께하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1,424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했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강남교회(담임목사 고문산)에서 장기기증서약예배를 드렸다. 1~6부

예배까지 진행되는 장기기증 서약예배에 강남교회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목사를 초청해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설교를 들었다.

박진탁 목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장기이식만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3일에는 강남교회를 비롯해 전국 5개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아 장기기증 서약예배를 드렸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중앙교회에서도 장기

기증서약예배가 드려져 748명의 신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해 이날 하루에만 전국 2,260명의 기독교 신도가 장기기증 서약에 함께했다.

지금까지 3,000여 개 교회의 약 57만 명 성도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장기기증 등록자 중 57%를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독교계의 참여가 장기기증 운동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하며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한 박진탁 목사는 “생명나

눔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앞장서서 장기기증 운동의 소중함을 전할 때라며 “예수의 부활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나눔을 기다리는 많은

장기부전 환우들을 위해 온 교회가 나서서 이 운동이 법교계적 사회운동을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동윤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있을 보유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아채만두 • 올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신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노환II

**동의당노환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추천 1: 한태성 박사(67세) 당뇨환자  
감자기 체중이 20lbs나 빠지면서 심한 갈증과 피곤이 동반되어서 작년 9월 동의당노환이 생략이란 점에서 안심하고 실로암 한의원을 찾았다. 공복당수치 463이 복용 3일 후 237로 내려갔고 2주후에는 89로 떨어졌으며 피곤과 갈증도 없어져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 너무도 놀라운 효과였다. 2개월 복용 후 약을 완전히 끊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장에게도 고맙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정지학 교수 한태성

전문 추천 2: 은퇴하신 함옥사님 72세 당뇨투병 35년  
실로암 한의원에 오셨을 때 증상은 매일 4회 인슐린 주사를 받고 신장합병증으로 주2회 투석을 하였다. 동의당노환을 2개월 복용 하였는데 당뇨 수치가 정상이 되고 1개월 더 복용한 후 신장투석을 안하게 되고 동의당노환을 끊은지 1년이 되었는데도 재발이 없다. 동의당노환이 기적을 낳은 것이다. 할렙루아!

동의당노환II의 특징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1. 100% 순수 한국산 천연 한약재만을 사용
2. 처음부터 혈당 강하제, 인슐린 주사를 끊게해 줌
3. 1~2주내에 정상 혈당치로 돌아옴
4.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최대한 합병증을 억제해 줌
5. 식후 3회만 복용합니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성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섬유화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스룸 오픈  
브로커 환영

ashin@winhyundaicarson.com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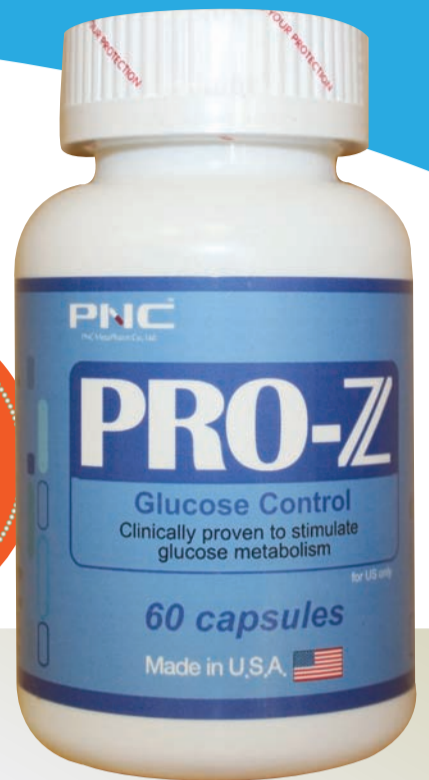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30만병 판매 기념 특별이벤트

##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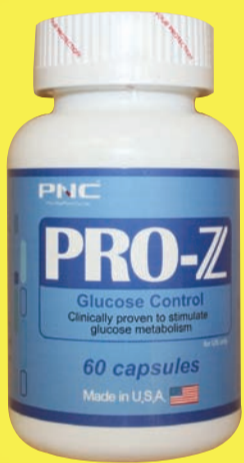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1병

\$76



2병

\$120

### 프로지 효능사례

#### 김 OO 장로(당뇨 10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3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 최 OO 목사(당뇨 3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6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전문 치료 한의원인 실로암 한의원에서도 PRO-Z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el .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업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신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 프로지 셀러 모집중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 셀러 모집  
 상담환영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213.434.1170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복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www.phhyundai.com

푸엔테힐즈 현대

**SUPER STORE**

2013년 모델

**Clearance Sale**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00대가 넘는  
2013년식  
신형 차량 보유



**\$199** +TAX

**2013 SONATA HYBRID LIMITED**

Model# G0432F4S

MSRP: \$31,540. 36 months lease \$2,999 due at lease signing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rebate, \$500 boost up cash.



**2013 GENESIS SEDAN (TECHNOLOGY PKG) \$279** +TAX

Stock# DU249043, DU247931, DU242510

MSRP: \$44,575. 36 months lease \$7,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rebate, \$500 boost up cash.



**2013 SANTA FE SPORT 2.0T (LEATHER & PREMIUM EQUIPMENT PACKAG) \$299** +TAX

Stock# 83072

MSRP: \$31,725. 36 months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k miles/year. \$1000 retail bonus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Boost up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Lease it for **\$139** Per Month +TAX  
**NEW 2013 VELOSTER (STYLE PKG + TECHNOLOGY PKG)**  
Model# F0303F45

36 Months Close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2999 Due At Lease Signing,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Boost Up Cash &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Lease it for **\$159** +TAX  
**NEW 2013 GENESIS COUPE GRAND TOURING A/T**  
Model# C0352R65

MSRP: \$33,190 close end lease for 36 months. 20¢ in excess of 12k mile/year. \$7,999 due at signing,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No security deposit. On approved credit

Lease it for **\$399** +TAX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Vin # 070328, Vin # 069919, Vin # 064363

MSRP \$60,170 close end lease for 24months, \$8,999 Due at lease signing,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500 boost us cash, 12,000 miles per year, plus 1st month's payment,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or save up to \$13,000 net cost: 47170/ 2 at this price, msrp: \$60,170, <\$10,600> ph discount, <\$2,400> all incentives, \$13,000 total net savings



스티브 강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USED CAR

EH870276A 2010 ACURATL \$21,500	34945 2011 EQUUS \$37,900	108167A 2011 INFINITI G37 \$20,900	EU078343A 2008 MERCEDES BENZ E350 \$22,900	EU859790A 2007 MERCEDES BENZ G55 AMG \$78,888
---------------------------------------	---------------------------------	--	---	--

푸엔테힐즈현대에서 함께 일할 세일즈맨을 모집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